소년단

10
1964

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우리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노래하고 춤출줄 알며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안다.
우리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키워온 재능을 웅장한 평양 학생 소년 궁전 극장 무대에서 남김 없이 보여 주면서 자기들의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며 춤추고 있다.

우리의 행복 끝 없어라

뛰띠뛰띠! 미국놈을 물리친 자랑 드높이 승리의 라팔 소리도 우람차게 《만세!》를 웨친다.
인흥 중학교 동무들의 군무 《양키 녹아난다》의 한 장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피여 납니다.
을 헤치고 눈보라를 뚫고
청수 중학교 동무들의
무용 《영웅의 꽃》

《념려말어, 노래나 잘 불러》
어린 손풍금수 황 두남 동무는 《우리 집 토끼》를 부를 영옥에게 반주는 념려 말라고 생긋 웃어 보입니다.

원수님의 품에 크는 조선의 붉은 꽃 세상에 우리보다 고운 꽃은 없어요…
단천 중학교 동무들의 민족기악 합주 《우리보다 더 고운 꽃은 없어요.》의 한 장면.

중강 중학교 동무들의 농악무 《만풍년 든 우리 마을》에서 무르 익은 오곡백과 가득 싣고 남반부 아버지, 어머니들과 어린 동무들을 찾아 가는 통일 렬차의 한 장면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 년 잡 지

소년단

10
1964

차 례

실화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 연 일덕 (4)

소년단원의 자랑을 안고 ········ 김 준규 (10)

(지상 작문 발표)

내 고향 ································ 백 금옥 (7)

내 것과 우리 것 ···················· 옥 전봉 (8)

우리 집 염소 ························ 김 종성 (9)

과학 인식

학습 문제 풀이 ························ (17)

남이와 옥이 ···························· (27)

척척할아버지 합성 수지에 대한 이야기 ···· (20)

재배 식물이 걸어 온 길 ············ 리 자원 (24)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가요 ······ 리 승일 (37)

가을철의 자연 ························ 림 형원 (49)

체육지식 - 모두다 기계 체조를 합시다 (2) ···· (57)

알아두기 ································ (53)

이것을 아십니까?

고무풍선은 어떻게 하늘로 떠올라 갈가요? ···· (6)

산울림은 왜 생길가요? ···················· (26)

온천은 어떻게 생겼을가요? ················ (33)

백두산에서 사는 메'닭 ···················· (45)

문예

단편 소설 동 무 ···························· 최 복선 (29)

책 가 방 ···································· 오 선학 (40)

련재 그림 — 행복의 피리 (3 회) ············ 그림 김 운현 (12)

련재 동화 만화 — 대담한 깡충이 (5 회) ······ 글 조 병권 / 그림 원 광수 (60)

(독자란)

웅변—수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 리 순이 (56)

동시—전차가 달려요 ························ 김 일근 (54)

전기를 소리 ································ 리 혜영 (54)

물의 약속 ·································· 안 춘옥 (55)

동요—우리 마을 ···························· 리 선영 (55)

우리 나라 명장; 연 개소문 장군 ············ 김 유방 (34)

우리 나라 고전 화가; 단원 김 홍도 ················ (58)

차돌이의 세계려행; 버마를 찾아서 ·········· 류 시호 (46)

소년단실 — 분단 총회가 끝난 뒤에 할 일 ············ (52)

꼬마진료소 — 공기 위생 ······························ (48)

유쾌한 오락실 ··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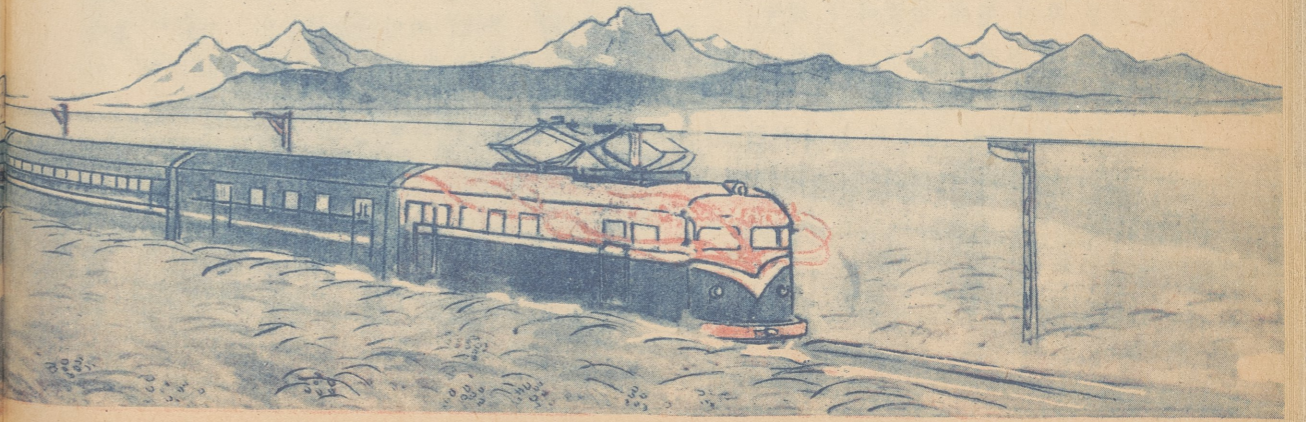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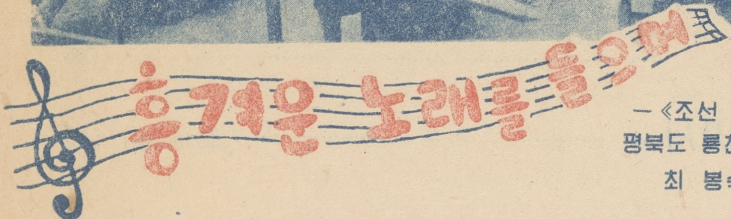
현상 문제 ·· (64)

만화

일 남 이 ·· (55)

꾀 돌 이 ·· (30)

표지 1 면— 소고춤 ······················ 촬영 리 종록

흥겨운 노래를 들으며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평북도 룡천군 신암 중학교 단 위원
최 봉숙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연 일덕**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소년단원들이 탄 뻐스가 평양 학생 려관 마당에 멎었습니다.

동무들과 손 잡고 다정하게 려관 방문을 들어 서던 봉숙이는 스피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 새 옷 입는 날
오롱조롱 우리 형제 얼굴마다 해쭉
어서야 입어 보자 원수님이 주신 옷
어깨 살짝 추어라, 야아 멋 있지!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야!
....

《야! 우리 학교 음악 소조 동무들의 노래가?!》

봉숙이는 너무도 기뻐서 소리 쳤습니다.

얼마 전 전국 소년 방송 예술 경연 대회에 참가하였던 봉숙이네 학교 음악 소조원들의 민족 기악 중주가 울려 나왔던 것입니다.

《참, 멋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들 하니, 응? 좀 말해 줘…》 하고 동무들이 다잡고 물었어요.

입이 무겁고 자기 자랑을 좀처럼 하기 싫어 하는 봉숙이지만 동무들이 자꾸 졸라대는 바람에 학교의 음악 소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해 5월 어느 날이였어요.

새로 단 위원으로 선거된 봉숙이에게 학교의 음악 소조를 맡아 도울 분공이 차례졌습니다.

음악에 소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조의 사업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조직이 주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건 기어이 해 내고야 마는 봉숙이는 이 일을 잘 실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언제나 공부를 잘 하고 동무들의 신망이 높은 봉숙이는 처음부터 소조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습니다.

태옥이와 영숙이가 소조 활동을 끝내고 음악실을 나서며 《음악 소조는 재미 없어. 다른 소조에 보내 달라고 말하자…》 하고 둘이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동무들 속에서도 음악 소조에 있기 싫다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알아 보니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음악 소조에 들어 1 년이나 남았는데 아직 악보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것이였습니다. 게다가 공연 준비를 할 때면 공부도 못 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싫다는 것이였어요.

봉숙이는 이런 사정을 음악 선생님에게 말씀 드리고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소조 동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 후부터 소조 활동은 공연 준비에만 치우치던 것을 없애고 소조원들에게 음악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찾아 가 악보를 배우고 있는 동무들.

봉숙이는 소조원들을 돕자면 자기가 동무들보다 음악 지식을 더 많이 알며 소년단 조직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부터 봉숙이는 음악 선생님에게서 소조원들을 도울 수 있게 음악 지식을 배워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음악 선생님에게서 악보 보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 가서는 그 날 숙제 공부와 함께 음악 학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소조원인 태옥이와 영숙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먼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악기를 타며 차근차근 배워 주기도 하고 그들이 음악 소조에 마음을 붙이도록 옛날 음악가들인 왕 산악, 우륵 선생들의 이야기도 재미 있게 들려 주었습니다.

봉숙이는 이처럼 꾸준히 배운 보람으로 얼마 안 가서 인민반, 중등반 창가 책에 나오는 악보를 볼 수 있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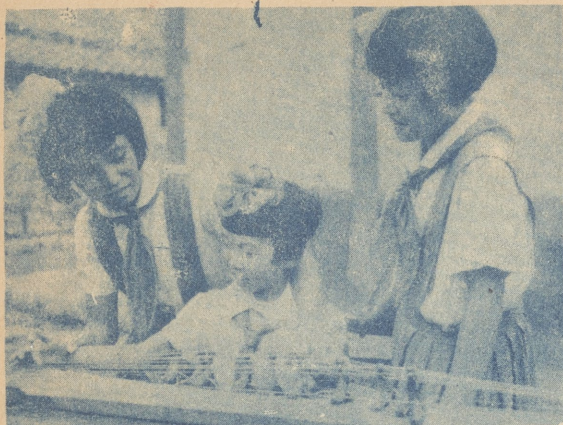
악보를 보게 된 그는 악기 련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 가면 밤 깊도록 악보에 맞추어 가야금 타는 련습을 했습니다. 가야금에 익숙해지면 아쟁을 련습했고 아쟁에 익숙해지면 양금을 련습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음악 지식을 배워 나가면서 동무들을 돕는 봉숙이의 아름다운 마음에 소조 동무들은 감탄했습니다.

봉숙이의 모범을 따라 소조 동무들의 열성은 높아 갔습니다.

지난 4월 15일, 단에서는 《꼬마 연주가》들과 《꼬마 독창 가수》들의 발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때 태옥이는 목금 독주를, 영숙이는 행금 독주를 멋지게 하여 동무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을 훌륭한 《꼬마 연주가》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태옥이와 영숙이를 돕는 봉숙이.

한때 음악 소조가 재미 없다던 태옥이와 영숙이가 《꼬마 연주가》로 칭찬을 받게 되였을 때 봉숙이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음악 소조원들이 《소년 선전 예술대》를 조직하여 협동 농장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안해 드릴 때도 봉숙이는 앞장에 섰습니다.

음악 소조원들이 농장원들을 위안해 드릴 때면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손이 저절로 흥겨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소년 선전 예술대》를 보신 인민반 4 학년 김 명옥 동무의 어머니는 선생님을 찾아 오시여 저의 딸도 음악 소조에 꼭 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음악 소조가 학교와 마을에서 사랑 받게 되자 소조원들의 대렬은 점점 늘어 갔습니다. 처음은 20여 명의 소조원들이 이제는 150 명으로 늘었습니다.》

봉숙이는 소조 동무들이 다루던 가야금에 괘가 하나 깨여져도 그것을 그 날로 수리해 놓고야 집으로 갔습니다.

악기를 사랑하는 데서도 소조 동무들의 모범이 되였습니다.

소조 동무들은 봉숙이의 모범을 따라 1년 동안 하나의 악기도 마스지 않고 깨끗이 다루었습니다.

봉숙 동무는 소조 동무들과 함께 소년단원들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음악 소조 동무들뿐만 아니라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 모두가 악기를 다루도록 도와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학교 중등반 동무들은 거의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게 되였습니다.

봉숙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무들은 모두 자기들도 그렇게 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날 봉숙이는 이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고 보니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돌아 가면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소년단원답게 더 열심히 공부하며 소년단원의 의무를 더 잘 실천하여 반드시 당과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고무 풍선은 어떻게 하늘로 떠 올라 갈가요 ?

동무들이 고무 풍선에 입김을 불어 넣어 보십시오. 풍선은 둥그렇게 불어 나지만 하늘로 가볍게 떠 올라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무 풍선은 왜 하늘로 떠 올라 갈가요?

고무 풍선에는 수소라는

기체를 넣습니다. 수소는 공기 중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인데 그 무게는 공기의 무게 보다 15 배나 더 가볍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무 풍선은 하늘에 잘 뜨는 것입니다.

독로강 기슭에 자리잡은 내 고향 칠산 마을은 아름다와요. 봄이면 진달래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사과와 밤, 대추며 갖가지 과실들이 무르익는 마을이예요.

우리는 마을 한복판으로 뻗은 큰 길 옆에 꽃밭을 만들고 여름 한철 갖가지 고운 꽃을 피워 오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분단 동무들과 함께 해마다 가로수도 심고, 마을 뒤'산에는 사과, 복숭아, 포도나무도 심고 가꾸지요.

벌써 우리들이 심어 가꾼 복숭아나무에서는 올해 탐스럽게 익은 첫 열매를 땄답니다.

그렇지만 리 병모 영웅이 고향을 사랑한 그 아름다운 마음에 비하면 우리들이 한 일이란 보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 흘리며 꾸려 놓은 아름다운 고향 마을에서 행복하게 자라 날 뿐 우리의 손으로 고향 마을을 더 잘 꾸리겠다는 마음이 적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에 꽃밭을 만들고 이사 가는 날까지 꽃밭을 가꾸었다는 영웅 오빠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합니다.

나는 분단 동무들과 함께 결심했어요.

래년에는 마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사루비야, 홍초, 채송화 등 갖가지 아름다운 꽃 종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심어 가꾸는 가로수와 과실 나무들이 바람에 넘어 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우기도 하고 겨울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짚을 싸 줄 준비도 하고 있어요.

마을 앞산에 분지 밭을 꾸리고 있는 협동 농장 아저씨들의 일'손도 도와 나섰어요.

우리는 영웅 오빠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본 받아 내 고향 칠산 마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 나가기에 힘 쓰겠습니다.

자강도 전천군 칠산 중학교 **백 금옥**

나는 《소년단》 잡지 8 호를 재미 있게 읽었습니다.

소년 소설《신호탄은 어디서 올랐나?》도 재미 있고 과외 학습 《지구 이야기》도 좋았지만 리 병모 영웅 오빠의 소년 단원 시절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몹시 끌었습니다.

영웅 오빠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어떻게 하였을가 하고 생각하며 나는 한 자 한 자 읽어 나갔습니다.

영웅 오빠는 학교와 고향 마을의 모든 것을 제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광산 마을을 지나다가도 로동자 아저씨들을 도와 밀차를 밀어 드리군 한 일, 물이 마른 논에 물을 대 준 일 등

만 가지고도 나는 영웅 오빠가 얼마나 공동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였고 로동을 즐겨 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웅 오빠와 함께 학교에 다닌 김 명재 오빠가 들려 준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 전 비 오는 날 학교로 오면서 길'가의 농장 밭 옥수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그 대로 지나쳐 버렸던 일이 생각 났습니다.

그 때 나는 옥수수가 마구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저걸 어쩌나 하고 걱정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웅 오빠는 옥수수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잎에 묻은 흙까지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일으켜 세울 념도 하지 못 했습니다. 만일 우리 집 울안에 심어 놓은 것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병모 오빠의 모범을 본받아 학교와 마을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로동을 즐겨 하는 참된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리 병모 영웅처럼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애국자가 되며 또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해 북도 은파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옥 전봉

우리 마을에는 집집마다 염소, 돼지, 토끼, 닭 등이 많습니다. 협동 농장 축산반에는 물론 더 많지요.

나는 우리 집 염소를 퍽 귀여워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염소를 끌고 들로 나갑니다.

염소는 이 곳 저 곳 돌아 다니면서 《냠냠》풀을 뜯어 먹습니다. 염소란 놈은 밭에 심은 콩, 옥수수를 잘 먹는답니다. 그래 한 번은 협동 농장 옥수수 곁가지를 따다가 주었습니다.

다른 염소들도 있었지만 나는 우리 집 염소에게만 뜯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나는 별다른 마음의 꺼리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소년단》 잡지 8 호에 실린 리 병모 영웅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야 그 때 생각을 하며 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웅 형님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농장의 옥수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농장의 옥수수 잎을 뜯어다 염소에게 먹였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자꾸만 얼굴이 달아 올랐습니다.

병모 형님은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고향 마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협동 농장의 옥수수 한 대까지도 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웅 형님의 이 마음을 본 받아 자기 학교와 마을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황해 남도 해주시 사미 중학교

3 학년　김 종성

소년단원의 자랑을 안고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량강도 갑산군 창동 중학교 제 2 분단 위원장 홍 범설 동무—

김 준 규

《제가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범설 동무는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해 내고 꾸준히 일하는 동무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범설이는 많은 동무들이 따르며 사랑하는 분단 위원장입니다.

그는 말이 적고 남달리 부지런합니다. 이것은 범설이가 학교를 제 집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오면 그는 먼저 교실 안을 휘둘러 보고 구석구석을 살펴 봅니다.

밤 새에 창문이 열리지는 않았는가, 교실 바닥은 깨끗한가고….

그런 다음 책가방을 책상 안에 가져다 넣고 창유리를 닦기도 하고 교실 바닥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범설이는 이따금 교실의 책상, 걸'상을 하나하나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혹 상한 책상이 있으면 곧 교실 한켠 구석에 가서 자그마한 나무함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함은 범설이가 생각하여 만든 것인데 크고 작은 못이며 쇠줄, 나사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범설 동무가 하나, 둘 얻어다 둔 것입니다. 범설이는 나무함 안에서 장도리를 꺼내여 흔들리는 책상, 걸'상의 못을 박아 넣습니다.

범설 동무의 모범을 따라 분단 동무들 모두가 교실을 깨끗이 하며 물건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1년 내내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책상, 걸'상 하나 찌글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범설이네 교실은 언제 들어 가 봐도 티 하나 없이 밝고 깨끗합니다.

범설이는 짬짬이 교실에 휴지함도 만들어 놓고 쓰레박, 거울 받치개, 꽃병 받치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범설 동무는 다른 동무들이 생각할 사이 없이 훌륭한 일을 생각해 내여 동무들을 감탄케 합니다. 그는 단에서 맡은 일도 다른 분단에서 하기 전에 먼저 훌륭히 해 놓군 합니다. 그래서 단 위원회에서는 흔히 범설 동무네 분단에서 한 일을 다른 분단에 알려 모범을 본 받게 합니다.

《넌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잘 하니?》 다른 분단 위원장 동무들이 이렇게 물으면 범설이는 《딴 게 없지 뭐,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만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하면 못 할 게 없어.》 하고 대답합니다.

범설 동무네 집에 가 보면 그의 책상 맞은 벽에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배우며 생활하자!》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범설이는 집에 돌아 오면 언제나 이 글을 읽으며 분단을 위하여, 동무들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 먹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합니다.

그는 하루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분단 위원장인 그는 무엇보다 최우등을 해야 하고 동무들과 함께 일할 줄도 알고 놀 줄도 알고 남보다 아는 것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범설이는 분단에서 하기로 한 일을 어김없이 다 하려고 날마다 계획을 세워 반장들도 만나고 소년단원들도 만났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뽈도 차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고 책도 읽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동무들보다 몇 곱절 바삐 보내지만 범설이는 조금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 먹고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범설이가 힘 쓰면 힘 쓰는 것 만큼 분단 일은 더 잘 되여 갔고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범설이에겐 이런 생활이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범설이네 분단 동무들은 단 총회 때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끔 가다 교장 선생님도 소년단원 동무들이 모인 데서 범설이네 분단을 칭찬하군 합니다.

이 때마다 분단 동무들은 분단 위원장인 범설이를 생각하군 합니다.

그들은 마음 속으로 범설 동무를 자랑합니다.

학교에서 소년단원들의 사랑을 받는 범설 동무는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가다가도 농장'벌에 소가 뛰여 들지 않았는가, 누구네 집 돼지가 울안에서 뛰쳐 나오지 않았는가, 어린 아이들이 길'가의 나무'가지들을 꺽지 않는가고 일일이 돌봅니다.

인민반 아이들을 데리고 학습도 도와주고 재미 있는 놀음을 놀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범설 동무를 착한 애라고 칭찬합니다.

사실 범설이는 그 어떤 떠들쿵 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범설 동무도 말하였지만 다만 그는 소년단원의 의무 그대로 배우며 생활하였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비록 남의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여도 좋았습니다. 오직 소년단원의 자랑을 안고 날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공부도 잘 된다고 범설이는 말합니다.

분단 동무들은 누구나 이러한 범설 동무의 모범을 본 받아 소년단원의 의무 대로 배우며 생활하는 참된 소년단원으로 되여 마침내 분단은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녔고 범설이는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련재 그림

행복의 피리

(3회)

그림 김 운현

17) 어데선가 하늘에서 지저귀는 제비의 소리를 듣고 복동이는 머리를 들었다.

피리가 잃어지는 날 어디론가 사라졌던 제비가 돌아 왔던 것이다.

복동이는 반가운 나머지 두 손을 높이 들어 제비를 불렀다. 그랬더니 제비는 복동이의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떨구었다. 그것을 찬찬히 살펴 본 복동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확 어리였다. 제비는 피리를 훔쳐 가지고 허둥지둥 달아 나던 괴물 부하 놈이 피리끝의 구술이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것을 주어 물고 돌아 온 것이다. 그것은 행복의 피리에 매였던 구슬이였다.

(어디서 제비가 이것을 가져 왔을가?) 머리를 드니 제비는 마치 손'짓이라도 재촉하는듯 날개를 퍼득이며 지저귀였다. 《제비야 고맙다. 우리 함께 원쑤를 치고 피리를 다시 찾자!》 감격한 복동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18)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피리는 꼭 찾아 오고 말테야요!》

복동이의 결심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알자 할아버지도 더 막지 못 했다.

《애야, 그러면 이 활을 갖고 가거라. 그리고 부디 몸 조심하여라!》

복동이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일어 섰다. 항상 복동이 곁을 떠나지 않는 야웅이도 복동이 하는 대로 절을 하고 따라 나섰다.

19) 복동이는 씩씩하게 원쑤를 찾아 길을 떠났다. 전통(화살통)을 차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였으며 하루에 몇 백리'길도 갈 것처럼 마음은 급했고 용기는 더욱 솟기만 하였다.

야웅이가 길을 제대로 못 걸으면 어깨에 올려 놓고 쉬임 없이 걸었다. 제비는 하늘에서 떠돌며 종일토록 길잡이를 하였다.

20) 해를 가리우는 우거진 숲도 헤쳐 나갔고 가없이 넓은 강의 쏜살같이 빠른 물'결도 통나무를 의지하여 헤여 건넜다.

로동에서 단련된 복동이의 강철 같은 몸이였건만 물을 무서워 하는 야웅이를 데리고 밀려 드는 파도와 싸우기에 지쳐 기슭에 이르자 그만 정신을 잃어 버렸다.

제비는 갈 길을 재촉하면서 안타깝게 지저귀였다.

복동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 앞길을 내다 보니 먼 곳에 놈들의 소굴이 보이였다.

마음 속에 불쑥 복수의 증오감이 솟았고 몸의 피곤도 한시에 풀리는 것 같았다.

21) 고양이를 앞세우고 복동이는 해질 무렵 괴물들의 소굴 곁에 다달았다.

성벽처럼 높은 돌담에는 돌옷과 이끼가 갸득 돋고 구새먹은 나무들에는 거미줄이 얼기설기 늘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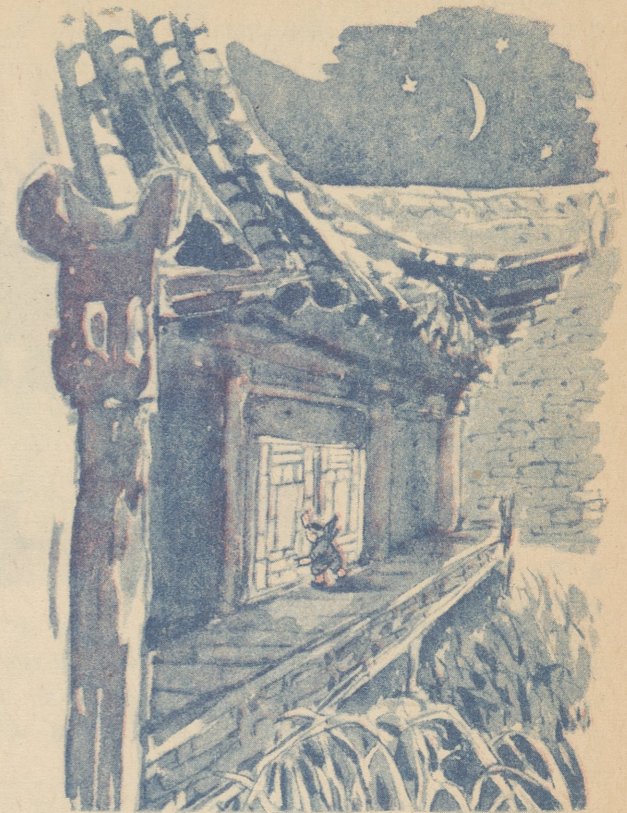
석등 뒤에 이르러 가만히 살펴 보니 성문처럼 생긴 어마어마한 문이 있는데 한 괴물이 방망이를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다.

출입문으로는 도저히 들어 갈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복동이는 돌담을 에돌아 어디에 들어 갈 구멍이 없는가 찾아 보기로 하였다.

이 때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보초놈이 《거 누구야?》 하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좇아 왔다. 그러자 복동이는 날쌔게 나무 숲을 꿰뚫고 돌담 모퉁이를 돌아 가 야웅이를 보내서 보초 놈을 딴 데로 이끌어 가게 했다.

22) 큰 나무 밑둥에 구새가 먹어서 생긴 틈새에 숨어서 복동이는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야웅이가 돌아 오자 복동이는 그를 먼저 담장 너머에 정찰을 보냈다. 날랜 야웅이가 소리 없이 사라지더니 얼마 안 있어 담장 우로부터 돌옷 덩굴이 드리워졌다. 어서 넘어 오라는 신호다.

복동이는 그 덩굴을 거머쥐고 높은 담을 바라 올랐다. 내려다 보니 괴괴한 소굴이 어둠에 잠겼는데 풀이 무성하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은 기둥이 썩고 지붕에는 성한 기와'장도 몇 장 안 돼 보였다.

23) 덩굴을 타고 소리 없이 내려 온 복동이는 마루에 기여 올라 희미한 불'빛이 새여 나는 창문'가로 살금살금 다가 가서 안쪽을 가만히 엿보고 그만 깜짝 놀랐다.

24) 방안에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괴물들이 큰 상을 가운데 하고 모여 앉았는데 상 우에는 돼지대가리에 날고기들과 술'잔 등속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중 몸이 크고 우락지게 생긴 놈이 머리에 관까지 쓰고 앉아서 큰 잔에 술을 가득 부어 들고 무엇인지 신기롭게 바라 보는데 그 놈이 아마 두목인 모양이였다. 그의 옆에는 한 괴물이 방금 앉아서 피리를 불려고 하는 참이였다. 복동이는 그 피리가 바로 잃어진 피리라는 것을 알자 가슴이 들먹이였다. 《옳다! 저 게로구나!》

25) 실눈이 치째지고 턱이 뾰족한 그 괴물이 제법 기분을 돋구느라고 지그시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더니 몸을 앞뒤로 흔들거리면서 피리 소리를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방안이 별안간 환하게 밝아지더니 어느 새 고운 선녀들이 방 한구석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피리야말로 정말 신기한 힘을 가진 것이여서 한 번 불기만 하면 그 어떤 곳에든지 이처럼 선녀들이 나타나서 힘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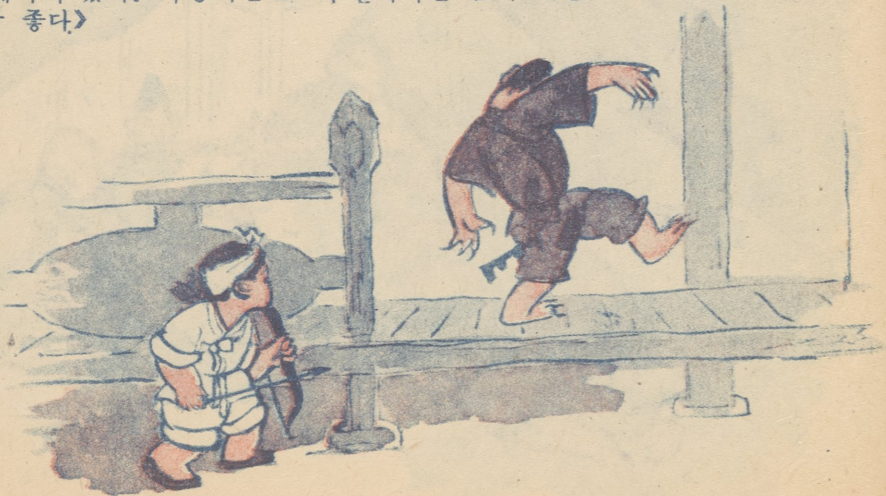
괴물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연거퍼 술'잔을 들면서 그들이 춤 추며 노래 부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선녀들은 피리 소리에 이끌리여 하는 수 없이 내려 오기는 왔으나 그 마귀 놈들을 위해서 춤 출 수는 없었다. 선녀들도 그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들에게서 이 훌륭한 피리가 잃어진 것이 무척 슬펐고 악착스런 괴물 놈들이 무한히 증오롭기만 하였던 것이다.

《어서 춤 추지 못 할가?》

선녀를 좇아 다니느라고 상을 뒤집어 엎고 온 방안이 란장판이 되고 두목 놈은 술이 잔뜩 취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며 방구석에 가서 드러눕고 말았다. 선녀들은 이내 온데 간 데 없고 그 부관이라는 놈은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쇠통에 피리를 넣은 뒤 든든한 잠을'쇠를 절커덕 잠그고 열'쇠는 허리에 매여 단 다음 일어 서 나왔다.

26) 밖에서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 엿보던 복동이는 괴물 졸병들이 나올려고 일어서자 몸을 피하여 기둥 뒤에 숨었다. 괴물들은 아마 제가끔 자기 방으로들 자러 가는 모양인지 뿔뿔이 헤여져 갔다. 복동이는 그 부관이라는 놈의 뒤를 바싹 따랐다.

《좋구 좋다. 얼씨구 좋다.》

코'노래를 부르며 팔다리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가는데 허리에는 커다란 열'쇠가 흔들거렸다. 복동이는 이 놈을 당장 해치고 열'쇠를 빼앗고 싶었으나 덤벼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도사리면서 조심조심 따라 갔다.

(복동이는 어떻게 되였을가요? 다음 호를 기다려 주세요.)

학습 문제 풀이

【학습 문제 1】

지리 (인민반 4 학년)

1. 우리 나라 동해, 서해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가 말해 보시오.

2. 자연호와 인공호란 무엇인가 례를 들어 말해 보시오.

3. 종이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를 말해 보시오.

【학습 문제 2】

자연 (인민반 4 학년)

1. 진흙으로써는 무엇을 만듭니까?

2. 모래는 무엇에 쓰입니까?

3. 비는 왜 내리는가 말해 보시오.

4. 책을 읽을 때 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가요?

(《학습 문제 풀이》 해답)

학습 문제 1

① 동해에는 명태, 고등어, 방어, 공치, 멸치 등이 많으며 그 외에도 수십 종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서해에는 조기, 갈치, 멸치, 삼치, 까나리, 도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레기, 대합 등이 많습니다.

② 자연호란? 지구의 운동으로 자연히 생긴 호수인데 우리 나라에는 50여 개나 됩니다.

례를 들면 백두산 천지를 들 수 있는데 면적은 781 km^2이고 주위는 19 km이고, 깊이는 약 300m입니다.

인공호란? 사람의 힘으로 만든 호수인데 100여 개나 됩니다.

례를 들면 수풍호, 장진호, 부전호, 풍서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③ 포플라나무, 백양나무, 황철나무, 사시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조선 종이를 만드는 데 유명한 닥나무가 있습니다.

학습 문제 2

① 벽돌, 기와, 화분, 독 등을 만들며 세멘트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② 콩크리트를 하는 데 쓰이며 벽돌, 독 만드는 데 쓰입니다.

좋은 규사로서는 유리를 만듭니다.

규사는 몽금포와 구미포, 옹진 반도에 많이 있습니다.

③ 구름은 바람에 날려서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압이 낮아지고 구름이 바람에 날려 모이면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서 큰 물'방울을 이룹니다. 물'방울이 커지면 공중에 먼지처럼 떠 있을 수가 없게 되여 땅 우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비입니다.

④ 책을 읽을 때는 똑바로 앉아서 책과 눈과의 거리를 30~35 cm 정도 되게 책을 뒤로 좀 눕혀 들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빛이나 전등'불이 반드시 왼쪽으로 비치게 하여야 합니다.

책은 누워서 읽거나 엎드려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학습 문제 풀이

【학습 문제 3】

산수 (중등반 1 학년)

아래의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고 순환소수를 쉽게 푸는 법에 대하여 말하여 보시오.

1. $x=0.3333\cdots(=0.\dot{3}=0.(3))$
2. $x=0.343434\cdots(=0.\dot{3}\dot{4}=0.(34))$

【학습 문제 4】

물리 (중등반 2 학년)

지구를 둘러 싸고 있는 공기를 《대기》라고 합니다.

1. 대기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얼마의 높이까지 있을가요?

학습 문제 3

(1) $x=0.3333\cdots(=0.\dot{3}=0.(3))\cdots①$

주어진 식의 량 변을 10 배 하면

$10x=3.3333\cdots②$

으로 된다. 이 둘째 등식에서 첫째 등식을 감하면

$9x=3$

을 얻는다. 량 변을 9로 제하면

$x=\frac{3}{9}=\frac{1}{3}$

즉 $0.3333\cdots=\frac{1}{3}$로 됩니다.

(2) $x=0.343434\cdots(=0.\dot{3}\dot{4}=0.(34))$

우의 식의 량 변을 100 배하면 (순환 절이 2 개)

$100x=34.3434\cdots$로 되며 다시 둘째 등식에서 첫째 등식을 감하면

$99x=34$로 됩니다.

량 변을 99로 제하면

$x=\frac{34}{99}$ 즉 $0.3434\cdots=\frac{34}{99}$

로 됩니다.

우에서 보는 것처럼 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려면 한 순환절이 표시하는 완수를 분자로 하고 한 순환절 안에 들어 있는 수'자의 개'수만한 개수의 9자로 된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를 만들면 됩니다.

례) $0.1212\cdots\frac{12}{99}=\frac{4}{33}$

$0.010101\cdots=\frac{1}{99}$

$10.123\ 123\ 123\cdots=10\frac{123}{999}$

$=10\frac{41}{333}$

혼순환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동무들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학습 문제 4

(1) 실험에 의하면 대기의 높이는 1,000 km 이상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기의 전체 무게는 약 5300 000 000 000 000 톤중이나 되며 그 무게의 절반 가량은 땅으로부터 5km의 층에 들어 있습니다.

(2) 대기는 높이 올라 갈수록 차츰 적어지는데 그의 무게는 지표면에서 체적 1 m^3에 대하여 약 1.3 kg중이며 25km의 높이에서는 43g중, 40km의 높이에서는 4g중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은 높이 올라 갈수록

학습 문제 풀이

2. 지구 표면에서 높이 올라 갈수록 대기압과 온도는 어떻게 달라질가요?

3. 펌프의 물은 얼마의 높이까지 올라 갈 수 있을가요?

4. 대기가 적은 곳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 날가요?

【학습 문제 5】

지리 (중등반 1 학년)

1. 흐르는 강은 흔히 오른 쪽 기슭이 깊이 패우는데 왜 그럴가요?

2.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큰지 말해 보시오.

(《학습 문제 풀이》 해답)

작아집니다. (12m씩 올라 갈 때 압력은 약 1 mm씩 낮아집니다.) 압력의 단위로는 《미리 바르》를 씁니다. 이것은 수은주의 높이(mm)에 $\frac{4}{3}$를 승한 것입니다.

온도도 높이 올라 감에 따라 낮아집니다. 15 km 이하의 높이에서는 1 km씩 올라 갈 때 6 도씩 내려 갑니다.

(3) 물은 수은보다 13.6 분의 1 이나 가벼우므로 토리첼리의 실험을 하면 물'기둥의 높이는

$760mm\times13.6=10\ 336mm=$
$=10.336m$

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물 펌프는 단번에 10 m 이상 물을 끌어 올릴 수 없습니다. 10m 이상의 높이에 물을 끌어 올리자면 양수기를 계단 별로 놓아야 합니다.

(4) 사람의 몸의 표면적을 약 5,000 cm^2이라 하면 5 톤중이나 되는 대기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감촉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데 습관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몸의 안팎의 압력은 비깁니다.) 만약 공기가 적은 곳에 사람이 있다면 호흡이 곤난한 것은 물론이고 몸이 부으며 혈관이 늘어 나며 심하면 눈알이 툭 삐여져 나오기도 합니다.

고무 풍선을 배기종에 넣고 공기를 빼면 풍선은 더 커집니다. 만약 배기종 안에 더운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물이 끓습니다. 고무풍선이 하늘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가요? 동무들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학습 문제 5

(1) 쉴새 없이 흐르는 강은 수백 수십 년이 지나면서 형태가 변해집니다.

그것은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원심력에 의하여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오른 쪽으로 기울어지고 남반구에서는 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 북반구에 있는 강들은 강물이 돌고 있는 지구와 함께 오른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흐르면서 강'기슭의 흙을 파서 하류로 날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쪽 강 밑은 몹시 깊어지고 강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대동강도 옛날에는 지금의 력포 구역 장진리를 통해 흘렀다고 하는데 오늘은 평양의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2) 지구의 직경은 약 1만 3천km이며 둘레는 4만km입니다.

지구의 표면적은 5억 1천만 km^2 이며 그 중 륙지는 29% (1억 4790만 km^2)이며 대양과 바다는 71%(3억 6210만 km^2)나 됩니다.

합성 수지에 대한 이야기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할아버지—그 간 공부들 잘 하였느냐?

일동—할아버지; 오늘은 합성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찾아 왔습니다.

척척할아버지—너희들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라는 것을 봤지?

일동—예.

척척할아버지—바로 그것이 수지의 한 종류이다. 송진이란 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길성—열을 가하면 물렁물렁해지거나 액체로 됐다가 식으면 굳은 고체로도 됩니다. 또한 알콜에는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영철—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습니다.

척척할아버지—옳아, 너희들은 참 잘 알고 있구나. 바로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송진이나 어떤 식물에서 나는 풀'기 있는 물질을 가리켜 수지라고 한다. 이와 같은 수지들은 자연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수지를 천연 수지라고 한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되면서 20 세기 초에 와서 사람들은 화학의 힘으로 여러 가지 물질에서 수지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합성 수지라고 한다.

례를 들면 석회석에서 나오는 카바이트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염소와 수소를 작용시켜 얻은 염화수소를 합성하여 만든 폴리 염화비닐 수지는 바로 합성 수지이다.

영철—할아버지, 이 번에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소물이란 말은 합성 수지라는 말과 어떻게 다릅니까?

척척할아버지—가소물이란 천연 수지나 합성 수지 할 것 없이 빚음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모두 가리켜 말한다.

수남—빚음성이란 무엇이나요?

척척할아버지—가령 어떤 고체에 힘을 주었다고 하자, 이 때 그 고체는 어떻게 되겠니?

일동—모양이 달라집니다.

척척할아버지—옳다, 모양이 달라질 테지, 가령 열을 받아 물렁물렁해진 송진을 꾹 쥐였다 놓으면 쥐였던 자리가 나겠지? 바로 이렇게 한 번 어떤 힘을 주었다가 그 힘을 없이 하여도 모양이 변한 대로 있는 성질을 빚음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성질의 물질인 세루로이드, 염화비닐, 뻬끄라이트 (전화기나 소케트를 만드는 것) 등을 가리켜 모두 가소물이라고 한다.

수남—할아버지, 그러면 가소물로는 물건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척척할아버지—가소물로 만든 물건의 기본 원료는 수지이다. 여기에 톱밥, 천, 석면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물건을 만든다. 가소물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는 압력과 온도를 주어 만드는 방법과 또는 일정한 틀에 수지를 녹여서 넣고 식혀서 굳게 하는 방법, 국수처럼 뽑아 내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전기 소케트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아 보자.

소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에서 나오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에 양재'물 또는 암모니아수를 넣고 일정한 온도에서 끓여서 물'엿과 같은 풀'기 있는 물질을 얻는다. 이것이 수지이다. 이 수지에 톱밥, 비누, 검은 물'감 등 몇 가지 약품을 섞어 말리운 다음 빻아서 가루를 만든다. 그 다음에는 그 가루를 소케트 모양 대로 만든 쇠틀에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수지 가루가 녹으면서 소케트의 겉모양이 만들어진다. 거기에다 전기를 통하게 하는 부속품들을 맞추면 훌륭한 소케트가 된다.

바로 이와 같이 수지로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는 가소물 제품 또는 플라스트마스 제품이라고 한다.

길성—할아버지, 아까 톱밥 같은 것을 넣는다는데 그건 왜 넣습니까?

척척할아버지—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기 위해 톱밥도 섞고 천, 종이, 석면, 유리 같은 것들도 넣는단다. 그것은 물건을 더 든든하고 쓸모 있게 하기 위해서다.

영철—물'감은 왜 넣습니까?

척척할아버지—그거야 고운 색갈을 가진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지. 너희들이 쓰는 비누곽에도 빨간 것, 노란 것, 파란 것들이 있잖더냐?

길성—할아버지, 합성 수지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척척할아버지—합성 수지를 가지고는 거의 못 만드는 것이 없단다. 합성 수지는 기계를 만드는 데도 많이 쓰인단다.

일동—예?! 기계를 만드는 데도요?

척척할아버지—암, 그렇구 말구. 선반이나 볼반 같은 공작 기계를 만드는 데도 많이 쓰고 자동차, 비행기, 기차, 여러 가지 전기 기계의 부속품을 만드는 데도 많이 쓰인다. 합성 수지로는 주로 기계의 몸뚱이나 부속품을 만든다. 그러면 기계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보기도 좋고 더 질기기도 하단다.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순 수지로 된 물건들이 12만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걸 보아도 수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잖느냐.

어떤 데는 철 대신으로도 쓰인다. 유리 섬유에다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섞어 만든 재료는 강철보다도 더 강하단다. 이것으로 자동차의 몸뚱이를 만들면 무게를 30~40% 가볍게 하고도 값을 20~25% 낮출 수 있단다.

일동—야!

척척할아버지—그것 뿐이 아니다. 데플론이란 수지는 왕수(염산과 질산의 혼합물)에도 녹지 않는단다. 왕수에는 시약(실험할 때 쓰이는 약)에 아주 강하다는 금도 견디지 못 한단다. 그러니까 데플론이란 수지는 금보다도 화학 실험을 하는 데 더 잘 견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들은 천을 짜는 섬유 가운데서 제일 가볍고 든든하고 더운 것이 뭐겠니?

길성—예, 털입니다.

척척할아버지—그렇다. 그러나 폴리우레탄이란 수지에서 얻은 털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털보다 5배나 더 가볍고 훨씬 따뜻하단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빛이 제일 잘 내다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길성—유리입니다.

척척할아버지—그렇다, 유리다. 그러나 수지로 만든 유리는 규사로 만든 유리보다 더 잘 보인단다. 이런 수지로 만든 유리를 유기 유리라고 하는데 보통 유리는 자외선을 통과시키지 못 하지만 이 유리는 자외선을 잘 통과시킨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로 창문을 하면 겨울에도 방에서 일광욕을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이 유기 유리는 잘 깨여지지도 않아 비행기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 밖에도 합성 수지로는 고무도 만들 수 있다. 규소 수지로 고무를 만들면 천연 고무보다 훨씬 좋은 성질의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뿐이겠니, 단백질로 만든 수지는 물'감을 넣어서 얻어 낸 빛갈보다 더 고운 호박색, 백옥색 등의 빛을 가진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영철—할아버지, 합성 수지로 또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그러자, 먼저 페놀 수지부터 말해 보자. 다른 수지들은 열을 받으면 녹지만 페놀 수지는 일정한 열에서는 오히려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을 리용하여 자동차, 땅크, 비행기 등의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기계의 치차, 바퀴, 베아링을 만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페놀 수지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화기통, 수화기, 소케트 같은 것을 만든단다. 그리고 옷걸개, 잉크 단지, 단추, 여러 가지 손잡이 같은 것을 만든다.

폴리 염화비닐 수지는 화학 약품에 잘 견디고 잘 썩지 않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선을 만드는 데 고무 대신에도 많이 쓰이고 실험실에서 쓰는 박막 그리고 비옷, 책상보, 식탁보, 랭상모판 문짝에 씌우는 박막, 가방, 트렁크, 식기 같은 것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뇨소 수지는 해'빛에 잘 견디고 물'감이 잘 들기 때문에 건설 자재, 옷장, 식장, 놀이'감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는 전기도 잘 통하지 않고 다른 수지들보다 굳어서 옷장, 식장 뿐만 아니라 고급 대리석을 대신하여 집을 지을 때 기둥, 방'바닥, 벽체 등에도 쓰인다. 그리고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 같은 데 바르는 도료로도 쓰인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지들이 있다. 화학의 힘이란 이렇게 큰 것이다.

당과 정부에서는 화학 공업의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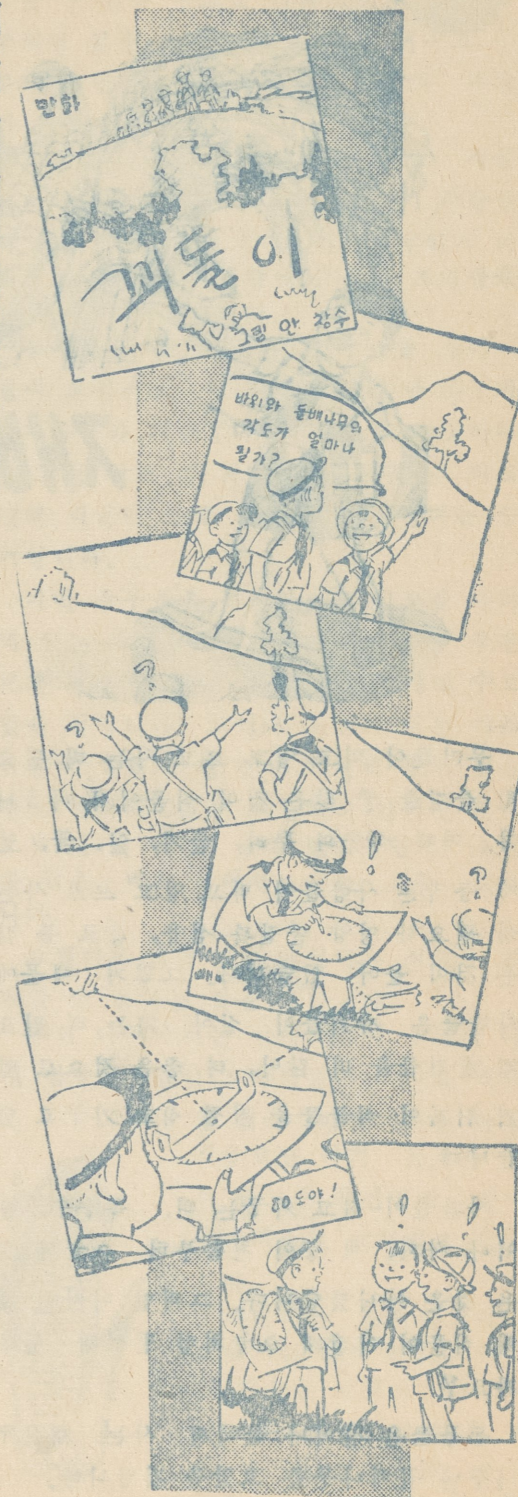
지금 우리 나라에는 본궁에 있는 염화비닐 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화학 공장들에서 염화 비닐, 페놀 수지, 뇨소 수지 같은 많은 가소물을 생산하고 있단다.

너희들도 공부를 더 잘 하여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여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일동—예, 할아버지 잘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척척할아버지—또들 오너라!

☆

소년단원 동무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우리의 척척할아버지는 동무들에게 무엇이든지 척척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재배 식물이 걸어 온 길

리 자원

우리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물건들 중 많은 것이 식물에서 나옵니다. 여러 식물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에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영양 물질과 섬유, 향료 등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 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얻기 위하여 식물들을 직접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고 가꾸는 벼, 옥수수, 콩이나 사과, 배 등이 처음부터 오늘과 같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배 식물이 어떻게 오늘처럼 발전해 왔을가요?

동무들은 산이나 들에서 사는 개살구나무나 돌배나무를 보았을 것입니다.

줄기나 잎을 보고서는 우리들이 가꾸고 있는 살구나무나 배나무와 다른 점을 얼른 가려 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곧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먹어 본 동무들은 알겠지만 개살구나 돌배는 알이 잘고 살이 없으며 딱딱하고 껍질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맛도 텁텁하고 십니다. 그러나 과수원에서 가꾼 사과, 배, 살구 같은 것은 크고 냄새도 좋고, 맛도 달고 시원합니다.

그러나 이 과실 나무들이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맛 있는 열매를 준 것은 아니랍니다.

먼 옛날 원시 시대 사람들은 야생 식물의 열매나 종자들에서 입에 맞는 것들을 골라 따 먹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 때 사람들이 열매를 따 먹은 식물들이란 지금 우리가 가꾸고 있는 그러한 벼, 옥수수, 사과, 배 등이 아니고 들이나 산에서 자라는 잡초나 잡목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식물들 가운데서 차츰 맛 있고 좋은 열매를 주는 식물들을 알게 되자 그것들을 골라 내여 심게 되였습니다. 이 때부터 농사가 시작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벼를 먼저 심었는데 벌써 기원전 1 세기 경에 남부와 중부에서 벼를 재배하였답니다.

우리 나라에 제일 많이 심고 있는 벼의 원종(선조)은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의 물'가에서 야생하는 종입니다. 이것은 보잘 것 없는 몇 개의 벼 알만이 붙어 있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재배하고 있는 옥수수도 아메리카의 야생 옥수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야생 옥수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삭과 알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락후한 방법으로나마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식물은 차츰 사람들에게 리롭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좋은 땅에 심고 거름을 많이 주게 되자부터 이삭은 점점 커지고 알도 크고 살이 진 열매들이 많이 달리게 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대대로 농사를 지어 내려 오면서 나쁜 종자를 심는 것보다 좋은 종자를 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도 잘 매여 주고 거름도 많이 주면 더 많은 수확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내려 오면서 재배 식물은 야생 식물에서 그의 원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였습니다. 배추처럼 잎을 먹는 식물은 잎이 커지고, 무우처럼 뿌리를 먹는 식물은 뿌리가 특별히 커졌답니다.

그것은 식물을 재배할 때에 그 식물에서 어느 기관을 리용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리용 부위가 더 커지고 좋아지는 방향에서 생활 조건들을 지어 주기 때문입니다.

동무들은 복숭아씨나 살구씨를 심어서 길러 보십시오. 이 씨에서 자라 난 나무가 돌배나무와 개살구나무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배 식물이 야생 식물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동무들은 지금이라도 인도란 나라에 있는 야생 벼를 가져다 재배하면 좋은 벼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벼는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두고 재배해 오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므로 단 몇 해나 수십 년 동안에 오늘과 같은 벼가 얻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야생하는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에 많이 분포된 야생 섬유 식물인 노박덩굴이나 사료 식물인 칡을 아직까지는 야생 식물로만 여겨 왔지만 그의 쓸모를 발견하게 되자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생 벼. 재배한 벼. 야생 옥수수. 재배한 옥수수.

재배하는 노박덩굴이나 야생하는 노박덩굴의 차이가 지금은 없지만 수천 수백 년이 지난다면 많은 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리용하는 부분인 껍질의 질이 좋아질 것입

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식물을 얻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려야만 될가요? 빨리 얻어 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같은 작물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에 대하여 봅시다.

벼에도 해방조, 평북 4호, 륙우 132호, 애국 20호, 온구 5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과만 해도 빨리 먹는 올사과, 축, 늦게 먹으며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국광, 오래 둘 수 없는 홍옥, 아주 신맛이 나는 왜금, 달큼한 인도, 데리샤스 등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품종이 생기게 된 것은 재배 식물의 재배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 가면서 그 성질이 점점 달라지게 된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에서 잘 자라는 것, 습기가 많거나 또는 적은 데서 잘 자라는 것 등에 따라 각각 그 특성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실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심고 가꾸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품종들의 좋은 특성만을 가진 그러한 우수한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과수 부문에서 국광과 골덴 데리샤스로부터 남포 1호를, 홍옥과 인도로부터 남포 2호를, 왜금과 골덴 데리샤스로부터 남포 3호라는 사과 품종을 얻었습니다. 이것들은 맛도 좋고 오래 동안 보관할 수 있답니다. 우리 나라 과학자들은 벼에서도 해방조 등 새로운 것들을 얻어 내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무들이 식물 과목에서 배운 것과 같이 교잡의 방법으로, 접목의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식물의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잘 관리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식물의 특성을 얼마든지 개조할 수 있으며 또 마음 대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과학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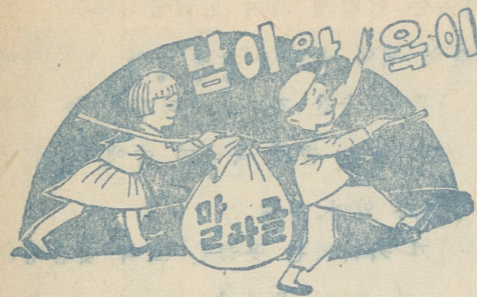
그러므로 동무들은 어려서부터 식물 학습을 더 잘 하며 실험, 실습, 관찰, 견학 등도 꾸준히 하여 장차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살림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식물 학자, 원예가, 농학자들이 되기 위해 힘 쓰십시오.

산울림은 왜 생길가요?

동무들은 바람'벽에 공을 던지면 그 공이 벽에 부딪쳤다가 돌아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산울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소리가 앞산에 가서 부딪쳤다가 다시 돌아 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곧게 퍼져 나가는 성질이 있고 또 도중에 어떤 물체에 부딪치면 되돌아 퍼져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골짜기에 가서 큰 소리로 웨치면 소리는 둘레에 있는 여러 산'봉우리에 부딪쳤다가 되돌아 와서 소리를 친 사람의 귀에 들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떤 사람이 산 뒤에 숨어서 흉내 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잘 된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명준네 분단에서는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고 그에 비추어 분단의 매 동무들의 품성과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였지요. 그 날 우리들—남이와 옥이도 거기 참가했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하나를 배우면 셋을 알기 위해 힘 써야 하며 누구나 자기가 하나를 알면 동무는 둘을 알도록 서로 도와 주고 가르치고 배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 남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동무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해야 나중 성공을 본다는 말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배움의 먼 길에 첫발을 디딘 소년단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도덕 품성이나 태도도 바로 배우고 닦아서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잘못 교양된 사람은 그것을 일생 고치기가 힘 들다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동무들 가운데서 〈청기와 장수〉처럼 모든 것을 저 혼자만 알고 다른 동무들을 도와 주려고 하지 않거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데 안에서 맴 돌면서도 제가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무 일이든지 〈수박 겉 핥기〉로 겉만 대충대충 핥아 나가는 버릇을 가진 동무들이 있다면 하루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단단한 땅에 물이 괸다〉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서 애 써 배우며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서로 밀고 서로 도우며 나가야 우리는 우리의 큰 희망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날 토론이 끝난 뒤에 우리는 잠시 교실에서 분단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헤여졌습니다.

《그 〈청기와 장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고 명준이가 물었습니다.

《오, 그건……》 하며 남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푸른 빛 나는 좋은 기와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기술을 저 혼자만 알고 제 아들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뒤'날에 전해지지 못 하게 되였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청기와 장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우물 안의 개구리〉, 〈수박 겉 핥기〉—거 참, 말이 멋이 있단 말이야…》 하고 순선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였어요.

남이는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다. 그런데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멋있는지 아니? 그것은 짤막한 덩이 말에 아주 깊은 뜻이 담뿍 뭉쳐서 들어 있기 때문이란다. 또 이 말은 언제든지 덩이 채로 뭉쳐 다니면서 쓰이고 또 그런 덩이 채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써 오

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나 글에 섞이면 아주 말이 구수해지고 생기가 나는 것이란다.

무슨 일이든지 해 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해 보아야 안다는 뜻으로 〈길고 짧은 것은 대 보아야 안다〉고 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쌓이고 뭉치면 큰 것이 된다는 뜻으로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며 힘 들어 한 일은 그 보람이 틀림 없다고 〈공 든 탑이 무너지랴〉고 합니다. 덮어 놓고 덤벼치는 사람은 〈우물 들고 마시겠다〉, 〈우물에 가 숭늉 찾겠다〉, 〈콩밭에다 서슬 치겠다〉고 나무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을 잘 헤아려 보고 하라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아홉 번 재다 한 번 자르라〉고 하며 성공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저물도록 가다가 문턱 못 넘는다〉고 한단다.》

그러면서 남이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고 하며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한 번 하고 못 줏는다〉고 쓸 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속담도 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고 말을 더 잘 하라고 가르치는 속담도 있단다. 〈같은 말이라도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말 한 마디 글 한 줄이라도 〈물에 물 탄 것〉처럼 슴슴하고 맺힌 데 없이 할 까닭이 있겠니?》 하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옥이가 《그 말이 옳다. 이걸 좀 봐라!》 하면서 벽보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습니다.

《몇일 뒤에 우리는 오래'동안 손 꼽아 기다리든 원족을 간다. 우리가 가는 두루산 꼭대기에는 솔발 욱어진 속에 먼 옛'날의 성터가 있다. …》

옥이가 가리키는 곳들을 보니 맞춤법을 바로 쓰지 못 한 곳들입니다.

《몇 날》이라는 뜻의 말은 《몇일》이라고 쓰지 않고 《며칠》이라고 씁니다. 그것은 몇 《일》의 《일》이 《삼일, 오일》 하는 《일》이 아니라 《사흘, 나흘, 열흘》의 《흘》과 같은 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몇일》이라고 밝혀 적지 않고 그냥 《며칠》이라고 쓰는 것이랍니다.

《오래'동안》과 《예'날》은 다 사이표를 안 쓰는 말입니다. 《오래 동안》이라고 띄여 써야 하며 《옛날》(《옛말, 옛적, 옛집, 옛친구》)과 같이 《ㅅ》 받침을 해서 써야 합니다. (《예로부터 예나 이제나》 할 때는 《ㅅ》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든》의 《든》은 《던》을 써야 옳습니다. 든》은 《든지》와 같이 《네가 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와 같이 쓰이며 《던》은 지나 간 일에 대해서 《어제 내가 읽던 책》과 같이 쓰입니다. 《욱어진 솔발》은 《우거진 솔발》으로 받침 없이 쓰입니다. 이렇게 받침 없이 쓰이는 말로는 《무너지다, 쓰러지다, 사라지다, 너머지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옥이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글이 암만 잘 되였어도 맞춤법이 하나라도 틀리면 《옥에 티》와 같이 글을 아주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따져 가며 착실히 배우자고 했습니다.

(단편 소설)

동무

최 복 선 그림 유 환 기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 오는 조용한 야영의 밤, 귀남이는 나무총을 어깨에 메고 호수'가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가을 바람에 옥수수잎들이 우수수 설레이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 왔다.

그는 잠시 호수'가를 거닐며 사위를 휘둘러 보았다. 환히 비치는 달'빛에 옥수수잎 사이로 노란 알이 툭툭 삐여져 나와 먹음직스러운 팔뚝만한 이삭들이 보였다. 귀남이는 옥수수밭을 눈여겨 보며 밤나무 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밤나무 밑 저 쪽 잔디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였다. 귀남이는 흠칫 놀라서 연기 나는 쪽으로 달려 갔다. 가까이 가 보니 그것은 방금 전에 동무들이 우등'불 모임을 한 자리였다. 불을 끄느라 했지만 밑불까지 채 꺼 버리지 못 한 게 틀림 없었다.

《큰'일 날 번 했네.》

귀남이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빨갛게 피여 오르는 불을 끄려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나무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뚜벅뚜벅 옥수수 밭쪽으로 다가 가서 큼직한 옥수수 이삭 하나를 뚝 따 냈다. 그리고 급하게 되돌아와 불을 헤치고 옥수수 이삭을 그 속에 깊숙이 묻어 놓았다. 그런데 바로 이 때였다.

《와스석버스석…》

마른 풀숲을 헤치며 누군지 이 쪽으로

걸어 오는 것이였다.

《누구얏 섯…》

깜짝 놀란 귀남이는 엉겁결에 큰 소리로 웨쳤다.

《스적스적…》

풀을 가르며 뛰여 오던 검은 그림자도 귀남이의 고함 소리에 몹시 놀란 모양으로 솔밭을 빠져 휙 달아 나는 것이였다. 자세히 눈여겨 보니 그것은 오소리란 놈이였다.

《히, 그런 걸 난 또…》

귀남이는 그제서야 모두쉬였던 숨을 크게 내쉬였다. 그는 그만 산'짐승에게 놀란 것이 은근히 부끄러워 머리를 긁적거리며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 보았다.

달'빛만이 호수에 비쳐 은파도를 이룰 뿐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옆에서

《빠지직》

옥수수 알이 불에 튀는 소리가 났다. 귀남이는 그 때에야 옥수수를 묻어 두었던 생각이 나서 재빨리 그 쪽으로 달려 갔다. 조금 전에 덮어 놓은 가랑'잎에 불이 당겨 빨간 불'길이 타 오르고 있었다. 그는 얼른 불무지를 헤집고 묻어 두었던 옥수수를 꺼내 보았다.

《에잇 이런! 고놈 때문에 괜히 옥수수만 태워 버렸네.》

그는 불에 까맣게 그슬린 옥수수를 아쉬운듯 바라 보며 피여 오르는 나무'잎들을 발로 꽁꽁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앉아 불에서 구워 낸 옥수수를 입으로 후—후—불어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인기척 소리가 들려 왔다. 돌아다 보니 순찰을 도는 룡길이와 윤호였다.

《난 또 누구라구, 마침 잘 왔다.》

귀남이는 두 동무를 보자 빙긋이 웃으며 옥수수를 무릎에 대고 뚝뚝 잘라 한토막씩 나눠 주었다.

《아니 너?》

룡길이는 옥수수를 받을 대신 귀남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서 먹기나 해. 고놈 오소리새끼 때문에 좀 태우긴 했지만 잘 익었어.》

귀남이는 옥수수 알을 뜯어서 호물호물 씹으면서 두 동무에게 권했다.

《야—이거 정말 멋 있구나. 먹기 싫은 사람 몫은 다 내꺼야.》

윤호는 롱'조로 이렇게 말하며 옥수수를 덥석 받아 들고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던 룡길이는

《야—너 이거 웬 거가? 농장의 옥수수를 따면 되니? 이 옥수수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농장 아저씨들의 땀이 스며 있다구…》

룡길이는 동무들을 타이를 때 잘 하는 버릇 대로 앞머리를 연신 뒤로 쓸어 올리며 말하였다.

《야, 됐다 됐어. 이까짓 거쯤 가지구 넘 뭘 그래!》

귀남이는 입을 삐죽이 내밀며 퉁명스럽게 한 마디 던지고는 손에 들었던 옥수수를 풀숲에 힘껏 던졌다. 그리고는 뭐라고 투덜거리며 휙 몸을 돌려 호수'가로 내려 갔다.

룡길이는 한동안 귀남이의 뒤'모습을 지켜 보고 서 있더니 빨갛게 남아 있는 밑불을 구두'발로 꽁꽁 밟아 꺼 버렸다.

《원 너두 참, 그만 일을 가지구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

귀남이가 주는 대로 덥석 옥수수를 받아 먹었던 윤호는 몹시 무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한 마디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 그럼 그게 적은 일이란 말이냐?》

《허지만 귀남이하구 너 하군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니?》

《글쎄, 그러니까 따끔하게 말하는 거야.》

룡길이는 나직하나 힘 있게 말하였다.

한편 귀남이는 호수'가를 서서히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제장 학교에서는 모범 분단을 쟁취하느라 그랬지만 야영에 와서야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담 체…그래두 뭐 나하구 친한 사이라구?)

귀남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룡길이가 나무랍게 생각되였다.

순찰을 끝낸 룡길이는 순찰 일지를 펼쳐 놓은 채 잠시 망설이고 있었다.

(사실 대로 쓸가? 물론 응당 그렇게 써야 해. 그러나…)

룡길이는 들었던 펜을 놓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그 대로 쓸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룡길이네 분단은 오늘날까지 무슨 일에서나 모범 분단이라는 자랑을 내내 지켜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귀남이 때문에 분단이 당하게 될 수치와 동무들의 나무람을 받게 될 귀남이를 생각하니 사실 대로 적어 넣을 수는 없었다.

(그래 분단을 생각해서 이 일을 눈 감아 버린다면 친한 동무인 귀남이의 잘못을 오히려 길러 주는 셈이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모범 분단의 자랑이란 무엇이며 소년단원의 영예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동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순찰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써 넣었다.

《보초를 서던 김 귀남, 농장의 옥수수를 따서 구어 먹었음.》

룡길이는 이렇게 써 놓으니 그제야 어쩐지 마음이 가뜬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이였다.

야영소에는 어느덧 어제 저녁 보초를 서던 귀남이가 농장의 옥수수를 따서 구워 먹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뭐? 농장의 옥수수를 땄어?》

《누가?》

《누구긴 누구야, 글쎄 귀남이가 그랬다지 않니?》

동무들은 모두 귀남이를 나무랬다.

동무들의 이런 나무람을 받는 귀남이의 얼굴은 귀밑까지 빨개졌다.

《흥 그만 일을 순찰 일지에까지 써? 어디 보자 씨!》

그는 그러한 룡길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부터 비가 내렸다.

비는 련 사흘을 두고 멎지 않고 계속 쏟아졌다. 야영생들은 창'가에 우루루 몰려 서서 비가 내리는 하늘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에잇 참, 하필 오늘까지 비가 올 건 뭐람.》

《글쎄 말야 지금쯤 뽀트 경기를 멋드러지게 하는 건데, 참.》

귀남이도 그들 속에 끼여서 창 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지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소리 치는 것이였다.

《귀남아! 우리 수'자풀이를 하지 않겐?》

뒤를 돌아다 보니 그것은 룡길이였다. 귀남이는 시쁘둥한 얼굴로 룡길이를 흘끔 쳐다보고는 휭하니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 날 저녁 집합 신호가 울리자 모두 모여 들었다. 그런데 룡길이만이 보이지 않았다. 직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다시 한 번 나팔 신호를 울렸다.

그러나 룡길이는 이 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윤호랑, 귀남이 그 밖의 몇몇 애들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찾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귀남이도 할 수 없이 룡길이를 찾아 나서는 수 밖에 없었다.

(야영에 와서두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구 으르던 애가 규률을 지키지 않구 어딜 갔담.)

귀남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농장 관리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쪽으로 동무들의 뒤를 따라 갔다.

《룡길아! 룡길아!》

목청껏 부르는 그들의 웨침 소리가 비'소리를 뚫고 뒤'산에 메아리쳤다.

올해에 새로 관개 공사를 하여 처음으로 논을 풀었다는 미나리'골 저 쪽에서 농장원 아저씨들이 일'손을 놀리며 부르는 노래'가락 소리가 은은히 들려 왔다.

그들이 룡길이를 부르며 내'가를 따라 얼마쯤 내려 갔을 때였다. 저 편 동'뚝 쪽에서

《어—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왔다. 소리 나는 쪽을 보니 물이 불어 난 내'가 동'뚝 옆에서 누군지 철벅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그 쪽으로 달려 갔다. 가까이 가 보았더니 룡길이가 물'살이 세찬 여울목에서 떠내려 가는 옥수수 이삭을 건져 내느라고 허더이고 있었다.

개울'가 비탈에 심었던 옥수수'대를 베여서 쌓아 놓은 것이 억수로 퍼붓는 비에 밀려 떠내려 가는 것이였다.

《야— 너…》

귀남이는 그만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멈덤히 서 버렸다.

《애들아! 빨리 빨리! 저기 또 한 개 떠내려 간다!》

룡길이는 얼굴에 줄줄이 흘러 내리는 비'물을 푸—푸 하고 입으로 내뿜으며 이렇게 소리 치는 것이였다.

동'뚝에는 팔뚝만한 옥수수 이삭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비는 계속 쏟아졌다. 한참 물 속에서 옥수수 이삭을 따라 잡으려고 다우쳐 가던 윤호가 어느새 동'뚝에 올라 서서 큼직한 옥수수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모두

《만세! 만세!》

하고 환성을 울리며 동'뚝으로 따라 올라 갔다. 귀남이도 다급히 따라 올라 가서는 입술이 파래서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룡길아! 그러다 빠지겠다. 어서 그만 올라 와!》

윤호가 웨치는 소리에 귀남이는 몹시 놀라 방금 나온 개울 쪽을 돌아 보았다. 그랬더니 룡길이는 아직도 물 속에서 옥수수를 건지느라 빠른 물'살을 따라 가고 있었다.

가느다란 옥수수'대에 달린 하찮은 이삭 한 개를 따라 잡겠다고 세찬 물'결을 따라 가는 룡길이는 맥이 진한 모양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니 저 애가………》

귀남이는 그 대로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황급히 물 속으로 뛰여 들어 룡길이가 따라 잡으려고 애 쓰는 옥수수를 향해 헤염 쳐 갔다.

《룡길아! 넌 그만 올라 가라! 어서.》

귀남이가 이렇게 소리 치며 룡길이를 떠밀다 싶이 하고 옥수수 이삭을 날쌔게 끌어 당겼다.

룡길이도 입을 앙다물고 옥수수 이삭을 멥석 잡았다.

그들은 흘러 내리는 비'물 속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실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참된 웃음이였다.

온천은 어떻게 생겼을가요?

온천이라면 그 지방의 년 평균 기온보다 높은 온도의 샘물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 평균 기온은 4~15°C 이므로 14°C 이상되는 샘물은 모두 온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20~37°C까지의 샘물을 온천이라고 하고 37°C 이상의 샘물은 열천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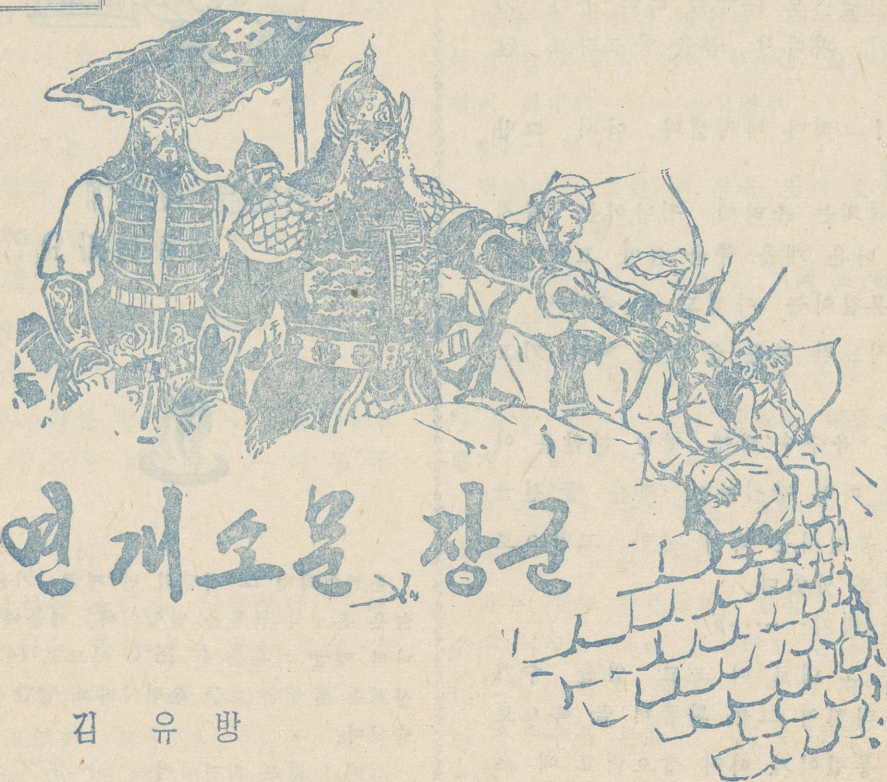
그러면 온천은 어떻게 생겼을가요?

땅 속에는 물(지하수)이 있습니다. 땅 속 깊은 곳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하여 언제나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이 뜨거운 열을 받아 끓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높은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약한 곳으로 새여 나오려고 합니다. 이리하여 땅이나 바위의 틈 새로 흘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온천입니다.

우리 나라의 주을, 양덕, 배천, 신천 온천은 모두 이런 원인으로 땅 우에 솟아 나오는 샘물입니다.

이런 물은 땅 속에서 많은 광물질염을 녹여 가지고 나오므로 그 속에는 많은 약 성분들이 들어 있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 치료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 명장

연개소문 장군

김 유 방

연 개소문 장군(614~666년)은 옛날 고구려의 이름이 높은 장군이였습니다.

연은 그의 성이고 개소문은 이름입니다.

장군은 614년에 고구려의 서울인 평양에서 태여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자기 집을 코에 걸고 나서기를 싫어 하였습니다. 혹 누가 자기 집에 대해 물으면 시침을 뚝 따고 자기는 물 속에서 솟아 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장군은 키가 여섯 자나 되게 후리후리한 데다 몸'집이 크고 엄해 보여 사람들이 곁에 다가 서기조차 어려워 하였다고 합니다.

장군이 활동하던 때 고구려의 나라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300만의 군대를 몰고 왔다가 고구려 인민에게 지고 쫓겨 간 수 나라는 얼마 아니 하여 망하고 그 대신 당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당 나라는 여전히 고구려를 저희들의 손아귀에 넣어 보려고 이모저모로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고구려의 27 대 영류왕을 비롯한 몇몇 량반들 가운데서는 더러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큰 나라에 붙어서 자기들만 호화롭게 살아 보려고 당 나라에 굽신거리며 아첨해 나섰습니다.

이 때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연 개소문 장군은 영류왕을 비롯한 량반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이 도무지 못 마땅하게 여겨졌고 밉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정부 안에서는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원쑤들에게 그냥 내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연 개소문 장군은 그럴수록 당 나라가 쳐 들어 오지 못 하도록 더 튼튼히 국경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북 국경 지대에 천 리나 되는 긴 성을 쌓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연 장군을 고구려 인민들은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 장군의 이름이 날로 높아 가자 이에 겁을 먹은 영류왕은 연 장군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성을 쌓기 위하여 지방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왕궁에서는 장군을 죽일 계교를 꾸몄습니다.

서울에 돌아 와 이 사실을 눈치 챈 연 장군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놈들을 그 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자주 독립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연 장군은 부득이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습니다. 장군은 생각 끝에 이 놈들을 단숨에 쓸어 버릴 궁리를 해냈습니다. 그리하여 장군은 자기 군대의 열병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열병식장 옆에는 큰 연회장을 만들어 놓고서 모든 벼슬아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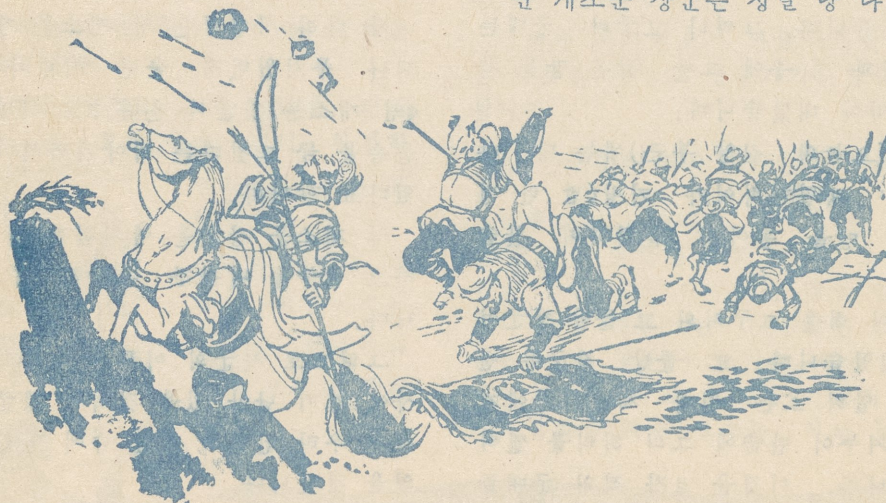
장군의 이 감쪽같은 계교에 끄박 속아 넘어 간 관리들과 귀족들은 술을 마시고 열병식도 볼 겸 모두 좋아라고 모여 들었습니다.

발'걸음도 당당하게 땅을 울리면서 행군하던 군대가 연 장군의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별안간 일제히 창을 들고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뛰여 들어 당 나라에 굽신거리던 귀족 무리들 100여 명을 눈 깜박할 새에 죽쳐 버렸습니다.

연 장군은 곧 군대를 거느리고 왕궁에 달려 가 영류왕의 목을 자르고 그의 조카를 왕으로 모시였는데 이가 바로 보장왕이였습니다.

연 장군은 막지리라는 제일 높은 벼슬을 하고 모든 권력을 틀어 잡았는데 이 때 그는 29 세의 피 끓는 청년이였습니다.

이리하여 정부 안에는 당 나라에 굽신거리는 자들이 더는 없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 나라와는 더욱 틀리게 되였습니다. 당 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 개소문 장군은 정말 당 나라가 얼마

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고 당 나라에 사신을 보내였습니다. 사신은 당 나라 왕 태종에게 바칠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당 나라 태종은 선물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고구려의 사신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당 나라가 고구려와 싸움을 하려는 트집이였습니다.

연 장군은 벌써 이것을 알고 전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국경의 요새인 료동성에 우수한 병사 2만 명을 보내였습니다. 그리고 안시성을 지키는 양 만춘 장군에게 성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 내라는 명령을 내리고 한편 만주 방면에 사는 말갈족까지도 싸움터로 내세웠습니다.

드디여 645년 당 나라 태종은 2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 쳐 들어 왔습니다.

고구려 인민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낫 대신에 창을 잡고 일어 섰습니다. 연 장군은 그들의 앞에 서서 용감하게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료동성을 한가운데 두고 그 부근의 성들에서 고구려 군대와 당 나라 군대 사이에는 가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적들은 성을 깨뜨리고 대포에다 돌을 넣고 쏘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군대는 미리 성벽과 성 우에 그물 같은 망을 쳐서 돌을 막아 내였습니다.

백암성(오늘의 심양 부근)에는 당 나라의 장수 계필하력이가 기병(말 탄 병사) 800 명을 뽑아서 돌격하여 왔습니다.

이 때 이 성은 고구려의 고 돌발 장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 돌발 장군은 맨 앞장에서 달려 오는 적장 계필하력에게 긴 창을 겨누어 단숨에 그의 허리를 찔러 꿰뚫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적의 군대들은 겁을 집어 먹고 그 자리에서 칼을 던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안시성에서도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였습니다. 적들은 이 성을 손아귀에 넣지 않고는 동쪽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은 이 성을 치는 데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썼습니다. 안시성 인민들은 적들이 쳐 들어 올 때마다 싸워 이겼습니다. 특히 양 만춘 장군의 교묘한 전술 앞에 적들은 무리주검을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적의 륙군은 반 년 동안의 전투에서 모두 죽고 겨우 1,000여 명만이 살아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 전투에서 당 나라 왕인 태종은 양 만춘 장군의 화살에 맞아 한 쪽 눈을 잃고 애꾸눈이 되여 돌아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당 나라의 침략군은 두 번이나 고구려에 쳐 들어 왔지만 연 장군은 인민을 굳게 묶어 세워 거듭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싸울 때마다 지고 돌아 가자 당 나라 태종은 화'병에 걸려 숨을 거두면서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는 유언(죽으면서 남기는 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당 나라 사람들은 연 개소문 장군이 어찌나 무서웠던지 울던 어린아이까지도 《연 개소문 장군이 온다.》고 하면 대번에 울음을 뚝 그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 개소문 장군은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미워한 용감한 장군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군의 이름은 우리 나라 력사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며 장군의 애국심은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가요?

리 승일

영화가 처음 발명된 것은 19 세기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지금으로부터 66 년전인 1897년에 처음으로 영화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 《조선 기록 영화 촬영소》를 비롯하여 5 개의 영화 촬영소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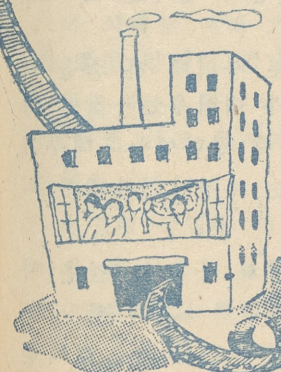
그럼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가요?

영화를 만드는 데는 보통 3 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는 작가가 씨나리오를 쓰고 씨나리오에 따라 연출 대본, 촬영 대본이라는 것을 만들어 영화를 찍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둘째 단계는 방안 혹은 밖에서 영화를 찍는 단계입니다.

세째 단계는 촬영한 토막 필림을 편집하여 음악, 말. 효과 등을 넣어 완전한 영화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차례로 하나하나 알아 보기로 합시다.

△ 씨나리오란 무엇일가요?

씨나리오라는 것은 연극을 할 때 연극 대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들이 쓴 연극 대본과 같은 글을 말합니다. 즉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만이 씌여지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나리오 작가는 문학 작가로서만은 부족하며 영화 기술과 영화가 가지는 특수한 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자면 먼저 좋은 씨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씨나리오를 쓰기 위해 필요한 곳에 다니며 많은 것을 취재하고 이야기 줄거리를 세우며 이 줄거리를 어떤 재미 있는 영화 화면에 담아서 보여 줄 것인가를 연구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씨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이 번에는 이것을 가지고 연출가가 연출을 하게 됩니다.

△ 연출이란 무엇일가요?

연출가는 씨나리오 작가가 쓴 씨나리오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씨나리오를 잘 연구한 후에 연출 대본이란 것을 만듭니다.

이 연출 대본에는 배우들은 몇 명으로 하며, 어떤 역은 누가 맡고, 배우들의 옷은 어떤 것으로 하고, 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를 찍을 장소는 어느 곳으로 하

고, 찍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영화를 찍을 때 무대에는 어떤 그림들이 필요하며 음악, 효과(영화가 실감 있게 보이도록 그 장면에 따라 바람 소리, 새 소리, 물'소리 같은 것을 넣은 것) 등은 어떻게 넣을 것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연출 대본에는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과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그 사건을 몇 개의 토막 장면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찍기 위한 장면 수와 화면 길이까지도 밝혀 놓습니다.

례를 들면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쫓겨 나가는 장면을 찍는다고 합시다. 이 때는 지주가 아버지를 나가라고 호령질하는 것, 그것을 멀리서 바라 보고 우는 어린 아들과 우는 아들에게 달려 가는 아버지, 아들의 손목을 잡고 힘 없이 지주'집을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등 세 개의 토막 장면으로 나누어 찍도록 밝혀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들은 그 대로 연기를 하고 촬영가들은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통 한 시간 반 동안 보는 예술 영화의 필림은 길이가 2,700 메터 가량 되는데 거기에는 500~600 개 정도의 토막 장면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록 영화의 경우에는 80~90 개 정도의 토막 장면이 들어 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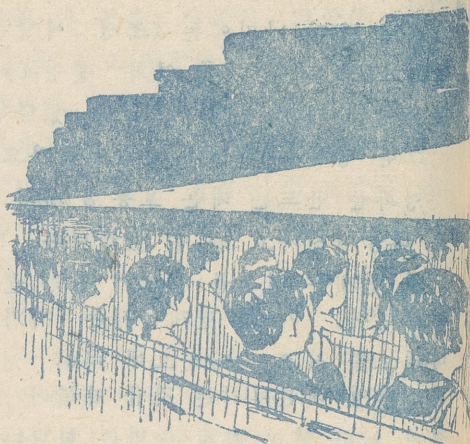
이 외에도 연출 대본에는 영화를 찍을 때 필림은 모두 몇천 메터나 들며 기타 물건과 돈이 얼마나 들게 된다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연출가는 효과, 음악, 무용, 그림, 사진 찍는 법, 거기에 드는 물건과 비용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연출가를 종합 예술가라고도 부릅니다.

연출 대본이 되면 영화는 이 대로 만들어집니다. 배우는 연출가의 지도 밑에 자기의 연기를 하게 되며 촬영가도 연출 대본 대로 연출가의 지도 밑에 영화를 찍게 됩니다. 촬영가는 연출 대본에 있는 내용을 더욱 예술적으로 잘 찍기 위하여 촬영 대본을 만듭니다. 이 촬영 대본은 연출가와의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 다음은 영화가 어떻게 찍어지는가를 알아 봅시다.

영화를 찍는 방법에는 여러 등장 인물들의 동작, 감정, 대화 등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찍는 법, 뒤로 물러 가면서 찍는 법, 우로 올라 가면서 찍는 법, 달리는 기차, 자동차 우에서 찍는 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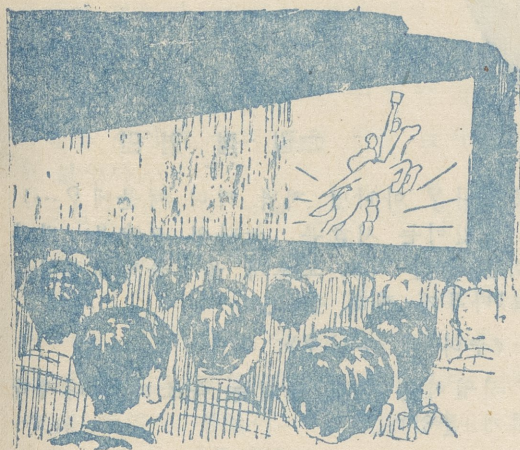
영화를 찍는 촬영기는 1 초 동안에 보통 24 개의 장면(필림의 길이는 0.5 m)을 찍습니다.

만약 배우가 한 초 사이에 한 손을 머리 우에까지 들었다가 내리우는 것을 찍는다고 합시다. 이 때 필림에는 배우가 손을 들었다 내리우는 과정이 24 개가 찍히울 것입니다.

또 동무들은 영화에서 사람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 가는 장면이라든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일제 놈들의 군용 렬차를 습격하고 폭발시키는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찍을가요?

사람이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 가거나 바다 속에서 고기가 헤엄 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큰 유리통을 만듭니다.

유리통에 물을 넣은 후 바다풀들과 고기들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사람들이 헤엄칩니다. 촬영가는 이것을 통 옆에서 찍습니다.

유격대원들이 일제의 군용 렬차가 지나가는 철교를 폭발시키는 장면을 찍는다고 합시다. 이 때에는 먼저 나무로 철교와 군용 렬차 모형을 그 대로 만들어 가지고 밖에 가져다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약으로 폭발시키는 장면을 찍습니다.

바로 이렇게 찍는 것을 합성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장면들을 찍는 합성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촬영된 수천 메터의 필림이 필림 가공 공장에 넘어 가서 현상하는 단계입니다.

현상된 필림은 연출가 혹은 편집원에게 다시 넘어 오게 됩니다. 연출가는 다시 연출 대본 대로 촬영한 필림을 영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면서 쓸데 없는 부분은 베여 버리고 실지 쓸 필림만 영화 줄거리 순서대로 이어 놓습니다.

다음에는 화면에 따라 배우들의 노래, 말, 효과 등을 록음하게 됩니다. (기록 영화인 경우에는 해설문 및 음악, 효과 등을 넣게 된다.)

록음하는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함께 록음하는 방법, 영화를 찍은 후에 따로 록음만 하는 방법, 먼저 록음한 다음에 그 록음에 맞추어 가면서 영화를 찍는 방법 등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 방법이 예술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록 영화인 경우에는 더욱 진실감을 줍니다. 그러나 함께 록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가령 어면 건설장에 가서 영화를 찍을 때 주위에서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기 때문에 영화에서 요구하는 노래, 말을 감정 대로 록음할 수 없게 될 때에는 할 수 없이 그 사진만 찍어 가지고 와서 록음은 후에 합니다. 후에 하는 록음은 록음실에서 찍은 사진을 영사막에 비추어 가면서 다시 배우가 말이나 노래를 하게 하고 그것을 록음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록음을 먼저 해 놓고 찍을 때는 록음한 음악을 틀어 놓고 이 노래와 음악에 맞추어 등장 인물들이 노래 부르며 춤을 추게 하고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들어진 영화는 다시 필림 가공 공장에 갑니다. 공장에서는 그것을 견본으로 하여 수십 개의 같은 필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여러 영화관에 보내서 돌리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책가방

오 선 학

그림 정 영 만

먹장 구름 새로 비껴 오는 저녁 노을에 하늘이 불 타고 있었다. 죄다 닳아 빠진 책가방을 메고 판자'집 좁은 골목길로 들어 서는 선일이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다. 너털너털 다 해진 양복 저고리 자락이 팔을 저을 때마다 너펄거리고 뒤축이 드러난 고무신'바닥이 터덜터덜 땅을 핥는 바람에 뽀얗게 먼지가 난다. 퍽 급한 걸음이였다.

서울 ㅈ 중학교 학생치고도 키가 작은 편이나 넓은 이마에 서글서글한 눈매라던가 몸가짐을 봐서는 열 네 살은 실히 넘을 상 싶었다.

반 남아 넘어진 판자'집으로 다가 간 그는 거적문을 흘쩍 들치고 들어 선다.

부엌에 앉아 있던 누이가 부엌 문턱에 들어 서는 선일이를 보자 얼른 고개를 돌리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은듯이 태연하게 부엌 아궁이를 들여다 보는 것이였다. 분명 누나의 눈'길은 흐려 있었다.

(무엇 때문에 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나? 아니면 저녁 끼니 때문에?…)

선일이는 서글픈 누나의 모습을 바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먹울먹해졌다. 코'마루가 찡해 왔다.

《누나 왜 우니?》

선일이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물었다.

누나는 대답 대신 일어 나 빈그릇만 만지작거렸다. 어린 동생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는 누나의 마음이였다.

《아버지 생각이 나 울지?》

선일이는 누나의 가슴에 서린 남 모를 사연을 캐여 물었다.

《울기는 누가 울어? 선일아, 누나는 울지 않는단다.》

동생을 쳐다보는 누나의 눈'두덩은 전에 없이 퉁퉁 부어 있었다.

외로운 오누이는 서로 바라다만 볼 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둠이 깃들도록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 앞에 저녁밥을 내놓지 못 하였다. 누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제가 손우의 누나(네 살 맏이다.) 구실을 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였다. 선일이는 책가방을 끄르고 점심'곽을 꺼내였다.

선일이의 점심'곽 뚜껑을 무심코 열어 보던 누나는 깜짝 놀랐다. 그 속에는 밀'기울 죽이 굳어져 곯아 빠진 채 그냥 남아 있지 않는가.

누나는 선일이를 원망스럽게 바라 보았다.

《넌 왜 점심을 먹지 않았니?》

누나는 못 마땅해 하면서도 애처로운 눈'길을 동생에게 던졌다.

《누나, 우리 반 애들 것 나눠 먹었어… 이걸루 저녁 먹자마 응?》

선일이는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누나는 대답이 없었다. 뺨에는 쌍줄기의 눈물이 흘러 내리였다. 그러나 선일이가 한사코 조르는 바람에 누나는 할 수 없이 점심'곽 하나를 사이에 놓고 그와 마주 앉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누구도 먼저 숟가락을 선뜻 대려 하지 않는다.

선일이의 점심은 또 그 대로 남았다. 하루 겨우 두 끼도 먹지 못 하는 그들은 오늘 저녁도 그 대로 끼니를 넘기였다. 아침에 싼 점심은 선일이와 누나의 다음 날 아침 끼니로 미루어졌다.

《이 놈의 세상이 언제나 망할가!》

누나가 한숨을 지으며 말하였다.

《누나, 경수 형이 그러는데 우리도 잘 살 때가 온대.》

선일이의 눈'길에 활기가 저으기 떠돌았다.

《그 오빠 말 대로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니?》

《누나, 그 때가 오면 우리는 밥 걱정이랑 하지 않을 거야, 응?》

순간이나마 아름다운 미래를 꿈 꾸는 그들의 공상을 깨여 버리기라도 하듯이 통행 금지 예비 싸이렌이 기다랗게 울렸다.

선일이는 흠칫 놀랐다. 대학교에 다니는 경수 형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 왔던 것이다.

(늦었구나!)

선일이는 허름한 책들을 꺼내 놓고 빈 책가방을 메였다. 누나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 밤'중에 어딜 가냐?》

《최 선생님이 숙제 풀러 오라구 했어.》

선일이는 얼른 대꾸하였다.

《싸이렌이 울렸는데 갑자기 무슨 숙제란 말이냐, 공연히 붙잡혀서 혼날라구…》

《걱정 마, 누나!》

선일이는 급히 밖으로 뛰여 나갔다.

누나는 분명 동생에게 속아 넘어 갔다고 생각하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 같았다.

누나는 방'구석에 놓여 있는 선일이의 책을 번져 갔다. 숙제를 풀러 간다던 선일이의 책들이 그 대로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의문의 실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재가 어디로 갈가? 누나한테도 속이는 일이 있나?)

생각을 고르던 누나는 자기한테까지 제 마음을 털어 놓지 않는 선일이가 언짢게 여겨졌다.

(빈 책가방?)

누나는 빈 책가방에 깃든 곡절을 애써 생각했으나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

× ×

선일이와 누나는 참으로 불행한 고아였다.

어머니는 선일이를 낳자 마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몇 해 전에 ㅅ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계 사고로 억울하게 숨지고 말았다.

그 때로부터 선일이보다 여덟 살 손우

의 형이 집'일을 도맡아 나섰으며 졸업을 앞두고 그 대학교를 그만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은 4 년 전 4. 19 인민 봉기 때도 용감히 싸웠고 늘 경수 형과 함께 동맹 휴학이나 시위 투쟁 때면 앞장에 서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박 정희 도당을 반대하는 삐라를 만들고 시위를 조직하였다는 죄명을 쓰고 끝내 놈들에게 붙잡혀 갔었다. 그러나 경수 형은 선일이의 형이 자진해서 《죄》를 다 썼기 때문에 겨우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형은 한 달째 풀려 나오지 못 했다. 선일이네는 매일 울었다. 오누이는 모여 앉으면 앞이 캄캄해 흐느꼈다.

선일이는 이 세상 어딜 가나 남조선과 같은 땅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 생각에 잠길 때마다 앞이 아찔했다.

바로 보름 전이였다. 아무 죄도 없는 선일이의 형은 끝내 재판을 받았다.

경수 형과 함께 재판장에 들어 갔던 선일이는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혹시나 해서 가슴이 떨렸다. 무섭기도 했다.

어찌하랴! 악독한 재판관 놈들은 형에게 무기형 징역 언도를 내리지 않는가!

선일이는 머리를 감싸 쥐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몸 둘 바를 몰랐다. 놈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었다.

(우리 형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던 선일이는 하마트면 기절할 번 하였다. 분해 맞은 선일이는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선일아! 울지 말아! 원쑤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라. 그리구 누나의 말을 잘 들어라. 다시 만날 날이 꼭 올 게다. 정말이다. 선일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놈들은 형을 끌고 서울 교도소로 갔다.

선일이의 머리 속에는 번개가 일었다. 형의 원쑤를 갚지 못 하는 것이 어린 몸에도 안타까왔다.

선일이는 형의 말 대로 울지 않았다. 형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 날 경수 형은 선일을 재판장에서 데리고 나와 한강 백사장을 거닐며 서러워 말라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선일아, 형의 뜻을 이어야 한다. 형이 마자 못 한 일을 네가 해야 한다. 그 길이 네 형의 원쑤를 갚는 길이란다. 형을 도로 찾는 길 말이야.》

선일이는 대답 대신 경수 형의 눈'동자를 힘 있게 바라 보았다. 눈'정기가 불 탔다.

그 때로부터 선일이는 형 생각이 날 때마다 경수 형을 찾아 갔다. 무엇이든 경수 형의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점점 부풀어 갔다.

오늘 밤도 선일이는 다름 아닌 경수 형네 일을 도우려 나갔다.

선일이는 날이 밝을 녘이 되여서야 헐떡거리며 집으로 뛰여 들어 왔다. 밖에서는 호각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순경들에게 쫓겨 들어 오는 것이 틀림 없었다.

선잠을 들었던 누나가 벌떡 깨여 났다.

어느 새 선일이가 자기 머리맡에서 쭈그리고 자지 않는가.

누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선일이의 눈'가워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온 몸이 땀 투성이였다.

창 밖이 푸름푸름 밝기 시작하였다. 날이 샐녘이 되였다.

어뜩새벽에 누나는 아침 끼니를 구할려고 시계'방 집에 가서 피쌀 한 되박을 꾸어 왔다.

그 새 선일이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 버렸다.

(애가 또 아침을 굶고 갔구나!)

이 한가닥 가슴 아픈 생각에 잠긴 누나는 얼른 밥을 지어 가지고 선일이네 ㅈ중학교로 찾아 가려 하였다.

부엌에 내려 선 누나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부뚜막에는 꼬깃꼬깃 말라진 돈이 놓여 있었다.

(응, 돈? 선일이가? 어데서 났을가?)

누나는 얼른 밥그릇을 들고 선일이네 학교로 갔다.

최 교사라는 선일이네 담임 선생을 만나뵈운 누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일이가 벌써 한 달째나 학교엘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최 교사는 그에게 동정의 빛이 어린 시선을 주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섰다.

만나면 호되게 꾸짖을 작정이였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돌아 다니는가 말이다.

누나가 종로가를 지나 장'거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람들이 삐라가 나붙은 담'벽에 모여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박 정희 매국 정권 망한다. 하루 빨리 박살 내자!》

《우리를 얼려 잡는 미국놈 내몰자!》

삐라 내용을 읽어 보던 누나의 마음은 이를 데 없이 통쾌하였다. 악으로 가득찬 이 놈의 세상이 빨리 뒤집혀지기를 기다리는 누나의 마음이였다.

누나는 삐라를 붙인 용감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경찰들이 달려 오는 바람에 멀지감치 피해 구석진 모퉁이에 이른 누나는 제 눈을 의심하였다. 선일이가 구두닦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의 옆에는 책가방이 놓여 있었다. 이따금씩 삐라가 붙은 담'벽을 흐뭇하게 바라 보는 선일이는 일'감이 없어지자 기진 맥진해서 담'벽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다. 얼굴이 몹시도 창백해졌다.

《선일아!》

누나는 선일이를 불러 놓고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

누나의 눈'길과 마주친 선일이는 서리 맞은 것처럼 고개를 푹 떨구었다. 말 없이 오래도록 바라 보는 누나의 눈'길이 무슨 뜻을 싣고 있는지 죄다 느낀 선일이는 머리를 들지 못 하였다.

선일이라고 공부하고 싶지 않으랴. 더군다나 학급에서도 1, 2 등의 성적을 다투는 똑똑한 선일이가…

자기는 공부하지 못 해도 저 때문에 무척 애를 쓰는 누나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구두닦이

를 하는 선일이의 기특한 마음을 누나인들 모르랴.

《누나, 이걸 받어, 오늘 번 거야.》

선일이는 돈 몇 푼을 누나의 손에 쥐여주었다.

(그럼 부뚜막에 있던 돈도 네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 번개처럼 지나 간 누나는 선일이를 그러안고야 말았다.

《선일아!》

누나는 가슴을 들먹이였다. 그들은 오래도록 말 없이 부둥켜 안고 있었다.

《아무래도 졸업 못 할 텐데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아, 누나!》

선일이는 자기들에게서 부모와 형을 뺏아 가고 나중에는 책가방까지 메지 못 하게 만든 원쑤가 증오스러워 흐느끼고야 말았다.

누나는 들고 왔던 선일이의 아침'밥 그릇을 풀어 놓았다.

《어서 먹어라!》

《누나도 먹어야 난 먹을래.》

《나도 먹겠다. 어서 먹자.》

그들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떴다. 밥이 아니라 피눈물을 삼켰다.

그 날 저녁도 선일이는 어둠이 깃들기 바쁘게 빈 책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갔다.

누나는 단단히 마음을 벼르고 선일이의 그림자를 뒤밟았다.

경수 형네 집에서 나온 선일이는 그 형의 말을 다시 한 번 속으로 외워 보았다.

(선일아, 형을 빨리 찾는 길은 네가 지금 걸어 가는 그 길이란다.

네가 진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런 가짜 책가방을 들어야 한다. 그 책가방에 희망의 책을 넣기 위해 지금은 싸움의 삐라를 넣어야 한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 서울 종로 거리 담'벽에 날쌔게 붙였다.

이따금씩 경찰들의 백차가 싸이렌 신호를 울리며 어디론가 미칠듯이 달려 갔다.

선일이는 또릿또릿한 눈알을 굴리며 사위를 살폈다. 얼른 입에 풀을 문 그는 메고 있는 책가방 속에서 삐라를 꺼내였다.

한 장 두 장 종로 거리 담'벽에다 삐라를 붙여 나갔다.

그의 뒤를 바싹 좇던 누나는 깜짝 놀랐다.

(오늘 아침 장'거리에 나붙은 삐라도 혹시 선일이가?

선일아 장하다! 네가 그런 큰'일을 하느라 이 누나도 속였댔구나. 래일부텀 이 누나도 네 일을 도와 주마 응!

그래 오빠를 찾자. 이 놈의 세상을 거꾸러뜨리자!)

누나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주위를 살폈다. 동생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에서였다.

선일이는 키가 작은 것을 안타까와 했다. 삐라를 높이 붙이고 싶은 그의 마음이였지만 키가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아무리 발돋음하여도 제 마음처럼 높이 붙지 않았다.

벽돌'장 몇 개를 고여 놓고 그 우에 올라 서서 갸우뚱거리며 키돋음하고 있는 선일이를 보다 못 하여 누나는 달려 가 그의 허리를 넝큼 안아 올리였다.

선일이는 깜짝 놀랐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어서 붙여라! 누나다. 놀라지 말아! 네 마음껏 높이 붙여라!》 하고 누나는 그를 높이 추켜 올렸다.

선일이는 얼른 붙이고 누나의 빛나는 눈'길을 오래도록 바라 보았다.

《누나!》

누나의 품에 안긴 선일이는 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도와 나선 누나를 비밀을 지키느라 여태껏 속인 것이 못내 부끄러웠다.

책가방 속에는 아직도 몇 장의 삐라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망을 서며 삐라를 죄다 붙이고 집으로 달려 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빈 책가방이 뛰여 가는 선일이의 등에서 춤을 추는듯 하였다.

밤 하늘에 총총한 뭇별이 부럽다는듯이 반짝이였다. 구름은 달'빛을 가리워 뛰여 가는 그들을 감춰 주는 상 싶었다.

백두산에서 사는 메'닭

백두산 기슭의 농사동, 삼지연, 리명수, 무봉 등에는 메'닭이 살고 있다.

이 메'닭은 검푸른 색 날개에 흰띠 무늬가 있고 ㅅ자로 갈라진 꼬리가 잘 어울려서 그 모양이 매우 아름답다.

겨울철에는 무리를 지어 모이를 찾아 다니며 마른 열매, 솔, 잣나무 잎들을 먹는다.

여름철에는 산 숲 속에서 백두산의 유명한 들쭉과 여러 가지 나무 열매들을 먹고 사는데 어찌나 동작이 빠른지 좀처럼 볼 수도 없고 잡기는 더욱 힘들다.

이 메'닭은 집닭이나 꿩에 못지 않게 크고 살이 많고 고기 맛도 매우 좋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 메'닭을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닭과 같이 사람들이 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차돌이의 세계 려행

버마를 찾아서

류 시 호

인도 지나의 여러 나라를 구경한 우리는 말라이 반도를 돌아 버마로 향하였습니다.

버마는 면적이 67만 7천 950km²이고 인구는 2천 66만여 명입니다. (1961 년도 현재) 이 나라는 동쪽으로 라오스, 타이와 이웃하고 있고 북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검푸른 인도양은 세찬 파도를 일으키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도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몸부림쳐 싸우고 있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드높은 기세를 말해 주는듯 했습니다.

벵갈만을 지나 버마의 수도 랑군에 들어 선 것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령사 관계가 맺어져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여서 버마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거리에 들어 서니 뜨거운 공기가 확확 안겨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증 굴에라도 들어 선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월부터 5월 중순까지가 제일 더운 때인데 이 때에는 보통 기온이 38 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동무들! 그래도 요새는 그리 무더운 때는 아니야. 우리 나라는 10월이 지나면 좀 선선해지니까.》

몹시 무더워하는 우리를 보더니 같이 다니던 버마 소년이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좀 선선해서 제일 지내기 좋은 때란다…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더위가 좀 수그러지기는 하지만 그 때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소낙비가 쏟아지군 한단다…》

《그러니까 너희네 나라에는 1 년에 무더운 때, 비가 많이 오는 때, 좀 선선한 때 이렇게 세 계절이 있겠구나?》

《그래, 세 계절이야. 참 조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지? 너희들은 얼마나 좋겠니!…》

우리는 버마 소년과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랑군시 반도라 광장에 이르렀습니다.

거리 량켠으로 화려한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 섰고 록음 우거진 길 건너에 하늘 높이 솟은 흰 탑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저것이 독립 기념탑이란다. 우리 버마가 1947년 10월에 영국 식민지로부터 벗어 나서 독립을 하지 않았니! 그를 기념해서 저 탑을 세운 거야…》

버마 소년은 이렇게 말머리를 떼면서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였고 제 힘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힘 쓰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버마는 16 세기 말부터 포도아와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1885년부터 6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답니다.

버마 인민들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첫날부터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습니다.

1930년에는 영국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무장 폭동을 일으켰으며 1938년에는 버마 력사에서 가장 큰 시위와 파업을 온 나라에서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줄기찬 투쟁을 계속한 결과 버마 인민은 지금으로부터 16 년 전에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랑군시 북쪽으로 걸어 가는데 저 멀리 불탑(절'간의 탑)이 보였습니다.

그 불탑은 끝이 뾰족하고 둥근 지붕으로 되여 있고 높이가 110 메터나 되는 데다 집이 온통 황금'빛으로 빛나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얘들아! 저것이 <쉐다곤 빠고다>라는 탑인데 랑군시 명물의 하나야…매일 수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념불(부처에다 복을 비는 것)을 드리러 간단다…》

버마 소년은 노란 옷을 입은 중들이 그 불탑으로 드나드는 것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벼 생산으로 이름난 곳인데 1961 년도에만 해도 679만 톤의 쌀을 생산했고 쌀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원유, 연, 아연, 주석, 월프람, 텅그스텐과 같은 땅 속의 보물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래 동안 식민주의자들에게 깡그리 빼앗겼으나 오늘은 이 나라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적지 않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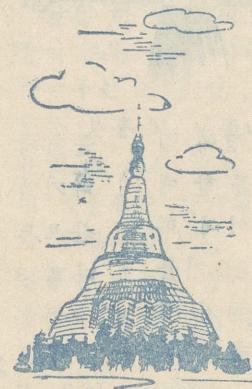
버마 정부는 이 나라에 오래 동안 둥지를 틀고 앉아 있던 미제가 티는 마음 대로 돈'벌이를 못 하게 하고 있으며 《원조》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들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던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 새 공장들을 짓지 못 하게 하는 법령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더러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장들도 나라의 것으로 만들었단다.》

버마 건축물의 하나.

버마 소년은 자못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버마의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 나라 인민들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마를 떠나면서 이 나라 소년들과 더욱 친선을 굳게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공 기 위 생

가을철을 맞는 어느 날 일남이네 분단 동무들은 꼬마 진료소를 찾아 가 공기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꼬마 의사는 봄철이나 가을철은 공기가 말라서 먼지가 많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기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공기 중에는 흙이나 모래, 석탄 가루 같은 것들이 떠 다니면서 사람이 숨을 쉴 때 코나 입을 거쳐서 폐 속에 들어 간다. 숨을 쉴 때 들어 갔던 먼지가 침이나 가래침에 묻어 밖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호흡기의 여러 곳을 거쳐서 폐 속에도 들어 가 몸에 해를 준단다. 먼지는 눈에 들어 가서 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먼지에는 여러 가지 전염 병균들이 묻어 다닐 수 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뱉은 가래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 밖으로 나온 병균이 먼지에 섞이여 떠다니게 된다. 우리가 이런 나쁜 공기를 들어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에 힘 써야 해.》

그러자 일남이는 《그럼 우리가 항상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니?…》 하고 물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만을 알려 주겠어. 먼저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란다. 집 주위나 학교 둘레, 집안과 교실 안에 먼지가 없도록 늘 말끔히 청소하여야 한다. 청소할 때에는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먼지털이로 먼지를 말끔히 털어 낸 다음 물걸레로 닦아 내야 한다. 장판방이나 마루방 같은 데는 될수록 물걸레로 먼지를 묻혀 내는 것이 좋단다. 그리고 먼지가 일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교실에서 떠든다든가 뛰여 다니면 안 된다.

밖에서 놀다가 교실이나 방에 들어 올 때는 옷과 신발을 깨끗이 털고 들어 오는 습관을 붙여야 해.

특히 교실에는 백묵 가루나 먼지가 날아 나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물걸레로 닦아 내야 한다.

교실과 방안의 공기를 맑게 하려면 깨끗한 공기를 자주 갈아 넣기도 하고 언제나 공기창을 열어 놓아야 한다.》

꼬마 의사는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면 거리와 마을, 학교와 집 둘레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것이 좋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화분을 많이 가꾸는 것도 공기를 맑게 하는 데 아주 좋다고 했어요. 식물은 사람들이 호흡할 때 내보낸 탄산가스를 마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보내니까요. 그러기에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산과 들로 산보도 자주다니는 것이 위생에 아주 좋다고 꼬마 의사는 말했어요.

가을 철의 자연

학사 림 형 원

가을이 되면 해'빛이 약하게 쬐일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쪼이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우리 둘레에서 일어 나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가요?

여름과 달라 가을이 되면 해돋는 자리와 해가 지는 자리가 남쪽으로 옮겨집니다. 낮에도 해는 하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하늘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해가 돋는 시간도 여름보다 늦어지고 지는 시간도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낮 시간이 여름보다 더 짧아집니다. 이것은 동무들이 매일 라지오 방송의 일기 예보를 주의해 들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뜰에 막대기를 세워 놓고 그림자가 변하는 모양을 보면서도 쉽게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해의 움직임이 변하면 기온의 변화가 일어 납니다. 해'빛 쪼이는 시간이 짧고 해'빛이 엇비슷한 각도로 비쳐지기 때문에 가을에는 날씨가 선선하고 차츰 차지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우리 둘레에서 일어 나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언제나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식물들에 어떤 변화가 일어 날가요?

① 식물의 잎은 단풍이 듭니다.

무성했던 푸른 잎들은 차츰 색갈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을이 되여 나무와 풀잎의 색갈이 변하는 것을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단풍 든다고 불러 왔습니다. 단풍 든 잎들이 나타나는 것은 가을이 되는 첫 특징으로 되며 식물들의 겨울 준비로도 됩니다.

잎은 한 가지 색으로만 단풍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나무는 노란 빛, 떡갈나무는 분홍 빛, 단풍나무는 붉은빛,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식물들도 갖가지 색갈들로 물들여집니다. 모두들 단풍든 잎들을 뫃아 놓고 색갈들을 서로 가려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도 살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입니다.

단풍나무.

나무'잎이 떨어진다.

홍초.

련꽃.

나리꽃.

② 나무'잎들은 떨어지고 가지에는 물'기가 적어집니다.

단풍 든 잎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늦가을이면 사철 푸른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것을 내놓고는 나무의 잎들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을이면 나무들은 벌거벗게 되며 땅 우에는 마른 잎들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잎들은 어째서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둘레의 환경이 변하는 데 따라서 그를 견디여 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무들이 넓은 잎을 버리면 물이 약간만 있어도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 붙기 때문에 여름처럼 물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름 동안에 살아 있던 잎들은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에 몹쓸 물질들이 남아 있게 되므로 이것을 밖으로 내버려야 합니다. 모든 식물은 여러 가지 몹쓸 물질을 말라 버린 잎에 모아서 해마다 내버립니다. 이것이 또한 잎이 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됩니다.

③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하여 미리부터 앞으로 자라날 싹눈도 준비하여 놓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나무'가지들을 살펴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싹눈들이 붙어 있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싹눈은 끝에 붙은 것, 한쪽 곁에 붙은 것이 있으며 잎이 붙어 있던 자리의 웃부분에도 있습니다.

그 싹눈들을 헤쳐서 살펴보면 겉에는 검은 갈색의 빛이 나는 딴딴한 비늘 잎들이 둘러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앞으로 잎과 새로운 가지로 자라날 만만한 부분들이 간직되여 있습니다. 싹눈의 생김새와 특징들은 모두 다릅니다.

여러 가지 나무의 싹눈들이 가진 특징들을 알아 봅시다. 오동나무, 목련, 감나무들은 싹눈의 비늘 잎들이 곱고 가는 털들로써 싸여 있습니다.

오리나무의 싹눈은 메마른 풀로 덮여 있습니다.

④ 덤불을 이루고 있던 수 많은 갖가지 풀들도 겨울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풀들은 여러 가지 곡식이나 꽃과 풀들 같이 씨를 남겨서 다음 해에 자라날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다리아나 홍초 같이 씨를 맺지 않는 식물들은 덩이 뿌리를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다리아나 홍초의 덩이 뿌리(꽃 뿌리)는 많은 양분을 간직하고 있어서 다음 해에는 여기서 싹들이 돋아 납니다.

련꽃이나 고사리 같은 식물은 겨울을 나기 위하여 땅속 줄기를 마련합니다. 련꽃의 땅 속 줄기는 살지고 만만하며 연한 색갈입니다. 그러나 고사리의 땅 속 줄기는 색갈이 컴컴하고 수 많은 잔 뿌리들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 뿌리들에서 새로운 싹이 다시 돋아 납니다.

나리꽃은 비늘 뿌리를 땅속에 남겨 놓았다가 새 싹을 냅니다.

참억새, 잔디, 쑥, 민들레들은 땅 속 뿌리를 남기고 땅 우의 줄기나 잎은 말라 버립니다. 이러한 식물들의 뿌리는 땅 속에 여러 해 동안 살아 있으면서 해마다 새로운 싹을 내군 합니다.

⑤ 가을에 심은 곡식과 채소들도 뿌리들이 땅 속에 살아서 남아 있으면서 겨울을 지냅니다.

왜냐 하면 이 식물들은 가을에 살아 있는 동안 추위에 견디는 물질을 빨리 만들어서 간직하여 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 밀, 가을 시금치들은 가을에 자랐던 푸른 잎들이 스러지지만 뿌리들은 겨울 동안 남아 있다가 이른 봄 일찌기 싹이 돋아서 해'곡식과 채소를 수확할 수 있게 합니다.

가을에 심는 곡식이나 채소는 될수록 일찌기 씨 뿌려서 뿌리를 튼튼히 키우는 것이 겨울을 잘 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튼튼히 자란 뿌리에는 당분을 비롯한 낮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쉽게 얼지 않으며 얼어 붙는다 하여도 살아 나가는 데 필요한 물을 잃어 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자라서 겨울나는 식물은 이렇게 겨울차비를 특수하게 잘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깊이 갈고 두엄을 많이 내여 흙을 부드럽게 할 때에 비로소 식물이 튼튼히 빨리 자라서 안전하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됩니다.

⑥ 과일 나무도 겨울을 잘 나게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포도 같이 추위에 잘 견디기 힘든 것은 땅에 덩굴을 묻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균이나 벌레가 들어서 상처를 내거나 양분을 빼앗지 못하도록 과일 나무 원줄기에 석회 유제를 발라 주며 또 가을 약 뿌리기도 하여야 합니다.

추위에 약하여 겨울을 잘 나지 못 하는 원림 식물들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실에 옮겨 놓거나 벼'짚으로 꽃나무를 싸고 찬 바람을 막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풀두엄을 꽃나무 둘레에 묻어 주고 겉 흙을 뒤집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벌거숭이로 된 과일 나무나 꽃나무에 생긴 싹눈들은 추운 겨울을 쉽게 이겨 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싹눈 속에 있는 만만한 부분은 두꺼운 비늘 잎들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컴컴한 빛나는 비늘 모양의 쪼각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 물'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양초 모양의 물질도 덮여 있어서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이겨냅니다.

우리 둘레에 있는 여러 가지 곡식, 풀, 나무들이 겨울차비를 어떻게 하였는가 살펴 봅시다. 그리고 손질도 제때에 해 주어 식물들이 겨울을 잘 나고 돌아 오는 새봄을 잘 맞이하게 합시다.

민들레.

밀

나무가 얼지 않게

석회 유제를 바른다.

김 창룡

분단 총회는 우리가 그저 회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단에서 할 일들을 토론해서 분단 사업을 더 잘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단 위원회는 분단 총회가 끝나면 모든 동무들이 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정한 것들을 잘 실천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총회 결정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1) 분단 위원회에서는 총회가 끝나면 곧 위원회를 열고 총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내놓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조목 별로 하나하나 의논해야 합니다.

어느 문제는 누가 책임 지고 언제까지 하게 하며 또 무엇을 어느 반 동무들이 맡아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도록 하자는 등 분공을 잘 주어야 합니다.

분공은 반드시 소년단원들의 취미와 요구에 맞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공 받은 동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며 도와 주어야 합니다.

2) 총회 결정을 잘 실천하자면 분공을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분공 받은 동무들이 분공 받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자주 총화해 보고 안 된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제때 제때에 세워야 합니다.

총화하는 방법은 분단 총회나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분공 받은 동무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총화는 될수록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총회 결정 실천에서 잘못 되는 것이 있으면 제때에 고쳐 줄 수 있습니다.

총화할 때는 반드시 잘 된 점이 무엇이고 잘 못된 점은 무엇인가를 똑똑히 가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 결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동무들은 분단 벽보에 소개하기도 하고 《꼬마 선동원》에게 모범적 내용을 주어서 동무들에게 널리 알려 모두다 그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야 합니다.

3) 분단 위원회는 소년단원들이 총회 결정을 잘 실천하는 것이 곧 소년단원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소년단원들이 총회 결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그를 끝가지 실천합니다.

이와 함께 총회 결정을 잘 실천하지 않는 동무들을 서로 타일러 주어서 결정 실천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분단 총회 결정을 어김 없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년단 반장들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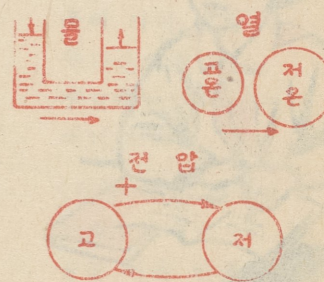
반장들은 분단 총회가 있은 다음 반 모임을 열고 분단 총회 결정을 반원들에게 알려 주며 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반의 실정에 알맞게 결정된 조항에 따라 반원들에게 분공을 주어야 합니다.

반에서도 분공된 일을 제때에 총화하고 그 정형을 분단 위원회에 보고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분단 총회를 한 다음 위원회와 반들에서 일을 잘 하고 모든 동무들이 한결같이 일떠선다면 총회에서 결정된 문제들을 성과 있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는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전 압》

물은 수위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데로 흐르며, 열은 온도가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로 흐릅니다.

전기는 두 점 사이에 전압의 차가 있을 때 흐릅니다. 즉 양전기는 전압이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로 흐르며, 음전기는 반대로 전압이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흐릅니다.

동시

전차가 달려요

궁전 같은 집채를
등에 업고서
해'님보다 일찌기
전차가 달려요.

깨끗한 아침 거리
정말 좋다고
빵빵 노래하며
신이 나서 달려요.

공장 가는 어머니
유치원생 내 동생
모두모두 태우고
전차가 달려요.

《안녕하세요?》
손 들어 소년단원의
인사를 보내니
차장 누나 방긋
웃음 보내요.

채송화도, 다리야도
방긋방긋 웃는데
전차는 씽씽
달리고 또 달려요.

평양시 서장 중학교 단
김 일근

=동시=

전기톱 소리

싸르릉싸르릉 전기톱 소리
우리 마을 가구 공장 전기톱 소리
아침에도 점심에도 한밤'중에도
쉬임 없이 싸르르릉 들려 오지요.

아름드리 통나무도 단숨에 켜는
싸르릉 저 소리 들을 때마다
구슬땀을 흘리시는 아저씨들의
웃음 어린 그 모습이 안겨 오지요.

싸르릉싸르릉 저 소리에서
옷장이며 찬장들 쏟아져 나오고

싸르릉싸르릉 저 소리 따라
우리 살림 부쩍부쩍 늘어만가요.

황해 북도 서흥군 서흥 중학교
11 분단 위원장 리 혜영

동시

물의 약속

천년 세월 굶으로만
굶으로만 흘러 가던 강물
오늘은 벼랑 우를
거슬러 올라요.

락원의 양수기 우릉우릉 돌아 가니
산 허리에서 처절썩
강물이 춤 추더니
다시 한번 훌쩍
날아 넘어요.

산 마루에 생긴 바다
한 바퀴 돌아
운하처럼 뻗은 물'길
너울너울 춤추며 강물이 흘러 가지요.

얼씨구 좋구나!
로동당 시대
천지 개벽 이룩하니
강물들도 금수 강산 구경한다네.

얼씨구 좋다!
흘러 가다 갈림'길
한가운데서
주알주알 약속하며
헤여져 가요.

《황금 가을 만풍년
앞세우고서
농장 마을 한복판에서
서로 만나자》고요.

황해북도 서흥군 서흥 중학교
문학 연구 소조원 안 춘옥

우리 마을

고향 마을 앞 강엔
양수기가 윙윙
우리 고향 송정'벌엔
보'물이 출렁

발방아로 물 올려
멍에 끌고 농사 짓던
우리 고향 송정'벌에
관개수 넘쳐 흘러

올해에도 송정'벌에
오곡 백과 무르익어
자동차로 쌀가마니
집집마다 나른대요.

강원도 창도군 대백 중학교
중등반 1 학년 리 선영

(이것은 재일본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 웅변 대회에서 중급부 1 위로 된 웅변입니다.)

수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일본 고베 조선 중고급 학교 대 중급부 3 학년 리 순이

우리의 아버지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어버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뻗쳐 주시고 계십니다.

동무들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때 억울하게도 부모를 잃은 최 영옥 4 남매에 대한 이야깁니다.

진달래와 살구꽃이 만발하고 벗꽃도 피기 시작한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영옥이는 새로 탄 학생복을 입고 동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승용차 한 대가 영옥이네 옆에 와 멎더니 모르는 젊은 아저씨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옥이네더러 새 교복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줄 레니 차에 타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영옥이네를 태운 승용차는 거리 한복판을 지나 한참 가더니 포플라인지 백양나무인지 알 수 없는 키 높은 나무들이 빽빽히 선 마당으로 들어 갔습니다. 자동차는 드디여 꽃밭 옆에서 멎었습니다.

아저씨의 안내로 한참 가니 한 분이 벤취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영옥이네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는지 보시던 신문을 내리우며 몸을 돌리시였습니다.

그 순간 영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답니다.

그 분이 바로 김 일성 원수님이시였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둘레를 받쳐 높이 모신 초상화 앞에서 아침마다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고 인사 드리는 영옥이가 김 일성 원수님을 어찌 몰라 보았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옷을 타 입으니 어떠냐? 옷 맵시가 작년 것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너희들도 마음에 드느냐?》고 하시면서 영옥이네더러 학교 생활, 부모님들에 대하여 찬어버이 같이 하나하나 물으셨답니다.

그런데 영옥이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원수님은 매우 가슴 아파하시면서 영옥이에게 부모님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영옥이네 집에는 승용차 운전을 하시던 아저씨가 자주 드나들었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1 절에는 영옥이네 4 남매를 모두 수령님의 집으로 불러 주셨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님과 함께 즐거운 5.1 절의 하루를 보내였습니다.

얼마 후 4 남매는 원수님이 직접 보내 주신 혁명 학원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생활하게 되였습니다. 그러기에 영옥이네 4 남매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김 일성 원수입니다!》고.

동무들! 이처럼 우리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원수님을 모신 우리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면 할수록 남반부 형제들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어느 오빠의 이야깁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다가 온 가족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오빠는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밀'가루 몇 숟가락을 살려고 자기의 눈을 팔 것을 결심하였답니다.

그 날 밤 그 오빠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어머니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말 없이 오래오래 바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눈물로 밤을 새웠답니다.

동무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단지 밀'가루 몇 숟가락에 귀중한 두 눈을 판다니 이런 놈의 세상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승냥이 미제 놈들 때문입니다. 이 놈들을 어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미제는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미제와 박 정희 도당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 오빠, 언니들의 애국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나는 원쑤 놈들의 총칼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오빠, 언니들과 같이 싸우지 못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동무들!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을 더욱 힘 있게 부르쥐고 원쑤 놈들의 가슴팍을 찌르는 마음으로 남조선의 오빠, 언니, 동무들의 몫까지 배웁시다. 더욱 열심히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웁시다.

우리들 고베 조선중고급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조국 서적 읽기 운동에서 목표로 내세운 5만 폐지를 뛰여 넘고 16만 폐지를 읽어서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에 보내는 선물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전체 소년단원들은 조국과 경애하는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총련 제 7 차 전체 대회 결정에 따라 조국 서적 읽기 운동과 국어 습득 40 일 간 운동에 힘차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운동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이며 소년단 생활을 더욱 잘 꾸릴 것입니다.

모두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의 참된 아들딸이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합시다.

(《조선 소년》 1964년 7월 1일부에서 전재)

모두다 기계 체조를 합시다 (2)

장 경남

(3) 평행봉 운동에서는 처음에 팔 펴 어깨 지지하고 앞뒤로 흔들기를 합니다.

철봉에서 앞뒤로 흔들기와 같이 다리와 발끝을 펴고 항상 발끝이 맨 먼저 앞으로 흔들리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팔 펴 짚고 앞뒤로 흔들기를 진행합니다.

팔 펴 짚고 앞뒤로 흔들기는 발끝에 힘을 주고 점차 크게 앞뒤로 흔드는데 앞으로 흔들었을 때는 어깨를 약간 뒤로 보내며 뒤로 흔들었을 때는 어깨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팔'굽 굽혀 짚고 앞뒤로 흔들기를 합니다.

팔'굽 굽혀 짚고 흔들기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펴야 합니다.

다음에는 차오르기, 앞으로 흔들어 오르기, 어깨 대고 거꾸로 서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힘이 늘어 더욱 힘든 동작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단원 김 홍도 선생

오 성길

김 홍도 선생은 18 세기 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뛰여난 화가 중의 한 분입니다.

선생은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였으며 뛰여난 재간을 가진 대화가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은 1760년 서울의 한 빈한한 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선생은 너그럽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시였습니다.

김 홍도 선생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뛰여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 전에 벌써 훌륭한 그림들을 그리였습니다. 그런 그림으로서는 선생이 열 일곱 살 나던 해에 그린 《군선도》, 스무 살 때 (1780년)에 그린 《선동 취적도》 등 훌륭한 작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김 홍도 선생이 창작 활동을 하던 시기는 낡고 썩어져 가는 봉건 통치 제도가 무너져 가는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인민들이 들고 일어 나 투쟁이 가장 치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거저 그림을 심심풀이로 여기지 않으면 붓 장난으로 먹을 담뿍 종이에 발라 놓던가 보고도 알 수 없는 풍경을 그리며 낡은 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선생은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은 가난한 집에서 태여난 탓으로 통치배들의 갖은 천대를 받으면서 근로하는 인민들에게서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림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앉아서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는 봉건 량반 통치배들의 썩어 빠진 추악한 꼴을 그림으로 그려서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수 많은 인물화, 풍속화의 그림들에는 한결 같이 인민을 사랑하는 그윽한 마음과 자신이 겪은 깊은 생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힘 들고 어려운 로동의 시달림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조선 인민의 굳은 의지와 생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 홍도 선생은 인물화, 풍속화, 풍경화, 동물화, 화조화 등 무엇이나 다 잘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창작한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야장을 하며, 춤을 추거나, 씨름을 하며, 집 짓는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는 선생이 얼마나 소박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인민들을 동정하고 사랑하였는가를 그 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폭 넓게 그리는 한편 《신선도》(신선을 그린 것), 《불화》(불교의 그림)도 잘 그렸는데 여기서도 당시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반영한 점에서 다른 일련의 《신선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김 홍도 선생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쉴 새 없이 일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얼굴과 동작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표정, 로동에서 발달된 근육, 골격, 동작, 지어는 그들이 입은 옷차림까지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진실하게 그림에 그렸습니다.

김 홍도 선생이 그린 《서당도》는 당시 서당에서 어린이들을 채찍과 책벌로 글을 가르치려는 것을 예리하게 폭로하였습니다.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있는 텁석부리 훈장선생은 높은 관을 쓰고 표독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는 채찍이 놓여 있습니다. 책을 훈장 앞에 내던지고 돌아 앉은 한 아이는 글을 잘 외우지 못 하여 매를 맞고 우는 체 하는 모습, 다른 아이들은 우스워서 웃어 대는가 하면 훈장 눈이 미친 쪽 아이들은 웃음을 참노라고 키득거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생생하며 우리의 눈에 안겨 오는 그림입니까!

다음은 김 홍도 선생이 그린 씨름하는 장면을 봅시다.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신을 벗어 놓고 씨름을 하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다리를 추켜 들고 이를 악물고 멨다 꽂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이 위기를 벗어 나려고 애를 씁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마 살은 여덟 팔자로 찡그리고 몹시 당황한 기색이 잘 나타났습니다. 한창 승부를 다투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구경군들은 손에 땀을 쥐고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몸을 뒤로 재끼고 깔깔 웃는 사람, 팔을 괴고 비스듬이 몸을 눕히고 자못 유유히 바라 보는 사람, 부채로 얼굴을 가리우고 숨을 죽여 가면서 넘겨다 보는 사람, 그 형형색색의 인물들은 그 표정이 다 다릅니다. 더더구나 엿장사 총각은 씨름하는 두 사람 중 누가 이기겠으면 이기고 지겠으면 지라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듯이 혹 누가 엿이나 사 주지 않을가 하고 딴청만 바라 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생동한지 엿 사라고 고래고래 웨치는 소리가 금시 들려 오는 감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그린 《음악과 춤》은 북 소리 둥둥, 장고 소리, 피리, 젓대, 날나리, 행금 소리에 맞추어 멋드러지게 춤판이 벌어진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이처럼 실로 선생의 작품은 그 어느 것 하나를 물론하고 모두가 원쑤를 미워하고 인민을 열렬히 사랑한 마음과 뛰여난 재능을 그 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 이룩한 예술적 업적은 우리 나라 력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 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서당도

투견도

련재 동화만화
(제 5 회)
대담한 깡충이
조 병권 지음 원 광수 그림

3보초소입니다. 참모장으로 가장한 정탐' 군놈을 방금 붙들었습니다. 네? 그 놈은 깡충이놈입니다. 네네……
3보초소
147

정탐' 군놈을 잡았다구? 그 놈이 깡충이놈이였단 말이야? 수고했다. 너희들에게 크게 상을 주겠다.
148

나를 당장 놔 주지 않으면 넌 죽음을 면치 못 할 줄 알라!
허허… 이 놈이 제법 누굴 위협하누나.
149

앗!
누가 견디나 두고 보자!
150

텀벙
151

이러다간 나까지 죽겠다. 나야 살고 봐야지.
152

날 좀 살려주!
153

무기 창고 열쇠는 옷 안에 간수되여 있구나…… 저 놈들이 또 따를 레지 빨리 도망치자!
154

저 놈을 놓쳤으니 어떻게 한담…
155

가서 그 놈이 벗어 놓은 옷이나 가지고 가야지.
156

참모부에서 오면 이것이라도 가져다 두었다가 보여 주어야지.
157

그 놈을 놓아 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줄 알았으면 그 놈을 잡았다고 참모부에 보고나 하지 말았을 걸 에익
158

저기 참모부에서 오는구나
뭐 참모부에서? 이걸 어쩌니
159

그 놈을 어데다 두었느냐?
그만 놓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놈이 가장했던 옷입니다.
160

뭣이 놓아 버렸다구? 이 바보 같은놈 얍!
아이쿠 아이쿠!
161

빨리 본부에 돌아 가 비상 소집을 해서·그 놈을 추격해야겠다.
162

참모장실
163

땡 땡 땡
164

무슨 일이 생겼을가?
왜 비상 소집을 할가?
165

(흥미 있는 놀음)

롱구를 즐기는 소년단원 동무들은 이 놀음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놀음은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편을 갈라서 여럿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할 것은 공 넣기 통 한 개와 고무공 6~10 개를 준비합니다. (그림 참고)

✻ 인민반 소년단원들이 할 때는 통을 2 메터 높이에 놓고 3~4 메터 거리에서 던져 넣는 것이 좋고 중등반 소년단원들이 할 때에는 통을 2~3 메터 높이에 놓고 4~6 메터 거리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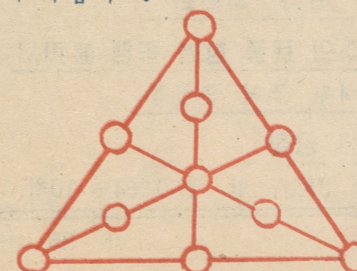
(그림)

△ 노는 방법은 한 사람씩 공 6 개~10 개를 하나하나 통을 겨누어 던져 넣습니다.

한 사람이 던지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또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더 많은 공을 통에 넣는 편이 이깁니다.

알아 맞히기

정삼각형의 변과 반경에 놓여 있는 열 개의 동그라미(그림 참고)에 1 에서 10까지의 수를 적어 넣는데 매 삼각형의 합이 각각 30 이 되게 하십시오.

(수수께끼)

①추우면 길어지고 더우면 짧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② 뼈에 털난 것이 무엇이냐?

③ 비 올 때만 펴지고 해가 나면 오무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④ 형체는 없이 소리만 지르는 것이 무엇이냐?

⑤ 낮에는 짐을 부리고 밤에는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이냐?

현상문제

(중등반)

우리 나라 강물에서 많이 잡히는 민물'고기의 이름을 아는 대로 적으시오.

(인민반)

서리 내릴 때 피는 꽃 이름을 아는 대로 적으시오.

7 호 현상 문제 해답

(중 등 반)

27 개를 세 묶으로 (9 개씩) 나누어 달아서 그 중 무거운 묶을 또 세묶으로 (3 개씩) 나누어 달고 그 중 또 무거운 묶을 세 묶으로 나누면 안다.

(인 민 반)

7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중 등 반)

평양시 룡흥 중학교 서 경일
개성시 고려 중학교 박 복순
함북 어랑군 하봉강 중학교 최 수만
평북 운전군 운전 중학교 문 성애
자강도 전천군 중암 중학교 계 창송
평남 개천군 개천 중학교 리 창호
평남 강서군 청산 중학교 리 준관

황북 황주군 황주 중학교 리 치연
평남 룡강군 후산 중학교 손 창삼
황남 재령군 룡교 중학교 리 옥선
평남 룡강군 대안 중학교 박 옥숙
함남 벽성군 룡정 중학교 윤 장실
강원도 원산시 갈마 중학교 송 찬석
황북 봉산군 2.8 마동 중학교 안 진숙

(인 민 반)

함남 영흥군 진흥 중학교 윤 기철
황북 서흥군 가창 중학교 한 재복
황남 장연군 봉화 중학교 홍 금숙
강원도 세포군 서하 중학교 박 문희
강원도 문천군 룡정 중학교 리 옥희
함북도 길주군 춘흥 중학교 허 순임
허 재관

수수께끼의 해답

① 밤
② 게
③ 우산
④ 우뢰
⑤ 옷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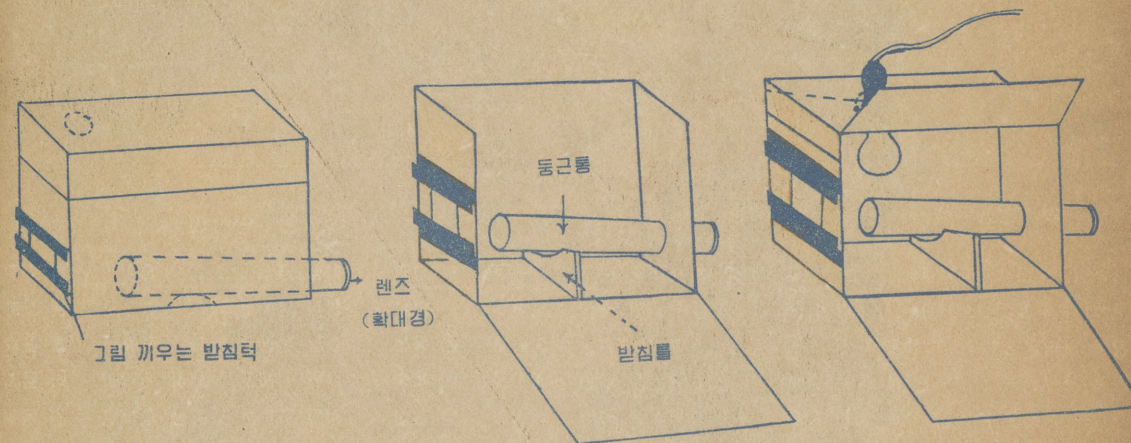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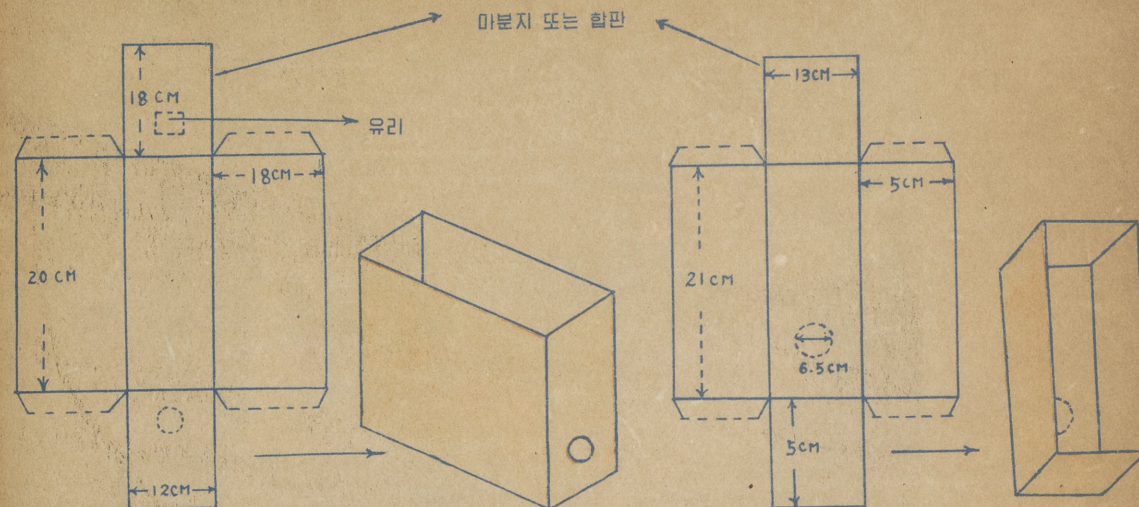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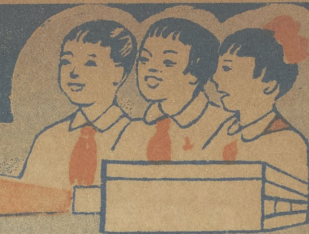
소년단 제 10 호 (루계 180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9월 21일, 발 행 1964년 10월 1일

ㄱ—430509 값 35 전

환등기 만드는 방법

마분지 또는 합판
18 CM
유리
18CM
20 CM
12CM
13CM
5CM
21CM
6.5CM
5CM
둥근통
렌즈 (확대경)
그림 끼우는 받침턱
받침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월 중 주요일지

△ 1일—남조선 10월 인민 항쟁 폭발 (1946년)
김 일성 종합 대학 창립 (1946년)
△ 4일—림업 로동자절
학생절
△ 10일—조선 로동당 창건 (1945년)
△ 11일—체육절
△ 14일—김 일성 동지 개선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1945년)
△ 25일—중국 인민 지원군 조선 전선에 참전 (1950년)
△ 26일—중국 인민 지원군 조선으로부터 완전 철거 (1958년)
△ 28일—18 세기 조선의 걸출한 사실주의 화가 단원 김 홍도 탄생 (1760년)

(정기 간행물
번호 제 13454호)

가을철의 금강산 옥류동

그림 정영